

2 0 1 1
F A L L
V o l . 2 8

세계 초우량 기업들	SPECIAL EDITION	03
항해가장 원익	COVER STORY	23
	DREAM SECTION	31
	PASSION SECTION	45
	CHALLENGE SECTION	53
원익인이 함께하는 사보	LIFE STORY	58

원익인

WONIK 30
30th ANNIVERS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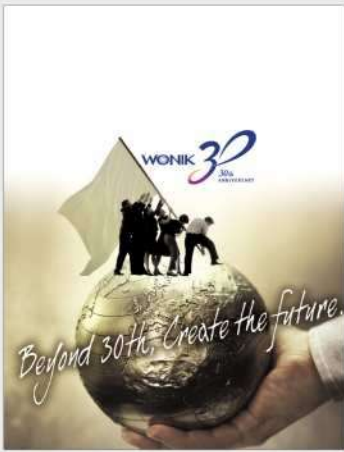


Beyond 30th, Create the future.

2011 Vol. 28
FALL

원익인

CONTENTS



세 계 초 우 량 기 업 을
향 해 가 는 원 익
원 익 인 이 함 께 하 는 사 보

원익사보 2011년 가을호 원익인 통권 28호
발행인 조용래
발행일 2011년 10월
발행처 원익
디자인 비즈커뮤니케이션즈 02.517.1901
본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 23층

사보 '원익인'은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ONIK 30TH SPECIAL EDITION

COVER STORY

D R E A M

P A S S I O N

C H A L L E N G E

L I F E S T O R Y

- 04 Message 원익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며
- 06 Interview 30년 원익의 발전사 도전정신과 투명성이 돋보였다
- 12 Best News 열정과 도전으로 열어온 30년!
- 18 30th Festival 원익가족이 하나 된
'원익 30주년 한마음 대축제'

- 24 Wonik News 원익 30주년 한마음 대축제 개최
- 28 CEO Column 스스로 만드는 기업문화가 좋은 기업문화
- 30 Discovery of Baduk 제7기 원익배 십단전 개막식

- 32 Special Edition 2011 국제반도체대전(-SEDEX)
- 34 Wonik Training Program CEO 리더십 과정, 임원 리더십 과정,
팀장 리더십 과정 등 3개 과정 실시
- 36 Power of Wonik Technique TGS 본부 장치사업팀 개발
파트 김성훈 부장과 팀원들
- 38 Wonik Dissertation Emerging Memory 기술동향

- 46 Zoom in 야구로 하나 되는 사람들 오늘도 승리를 향해 뛰자
- 48 Scene of Welfare Service 조금만 손내밀면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 50 Talk Box 원익인 가슴에 새겨진 원익 30주년의 의미

- 54 Wonik's Dream Team 장안정신으로 제품 생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 56 Never ending challenge 스티브 짐스·실패는 곧 승리의 역사

- 58 Economic Report 삼성, 특허소송 불구 첨단 핵심 부품은
여전히 한국산 우세
- 60 Musical 세계를 매혹시킨 전설의 영웅 '조로', 그를 만나다
- 61 Exhibition 드로잉 하나로 세상을 해석하는 천재 댄 퍼잡스키
한국에 오다
- 62 Health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보호하고 가을의 기운을 만끽하자



Beyond 30th, Create the future.

원익 30주년 특집

04

MESSAGE INTERVIEW

30주년 회장님 말씀



06

INTERVIEW

간추린 원익 30년



12

BEST NEWS

원익 BEST NEWS



18

30TH FESTIVAL

30주년 기념 행사



Beyond 30th, Create the future.



MESSAGE

30주년 회장님 말씀 | 원익 회장 이용한

원익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며

임직원 여러분!

우리 원익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원익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원익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 원익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클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1981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 30년간 원익은 다양한 사업분야에 도전하여 성공을 거두어 왔습니다.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를 포함하여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위기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익은 이를 극복하고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사업구조를 심화·발전시켜 왔다고 자부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자, 무역유통, 건설, 금융 등의 주요 산업에 진출하여 중견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내부적으로는 신뢰, 공정, 투명성을 바탕으로 건강한 기업문화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임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힘차게 도전하고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은 집념과 도전의 발걸음이 오늘날 원익 30년을 잇는 디딤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원익은 임직원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신뢰, 그리고 끊임없는 헌신과 열정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원익은 앞으로 3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과거의 성공요소와 실패요인을 거울 삼아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원익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기업문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원칙으로 함과 아울러, 열정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기업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있어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은 향후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 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잡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분야, 다른 인간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의 성공하였던 방식이 미래에는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와 같이 새로운 기술과 독한 근성으로 더 싸게 제품을 공급하려는 시도만 추진한다면 사업은 실패로 끝나기 쉬운 상황이 도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더욱 싸게 공급하려는 경쟁자는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그마한 후발 기업이 선발 기업의 Know-how와 약점을 간파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경쟁우위를 변경시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복잡한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기업문화를 가

열정과 도전

투명과 공정

혁신과 창의를 바탕으로

임직원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신뢰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과 열정이 이루어낸 성과



꾸어 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의성이라면 새로운 관계를 지각하거나,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또는 전통적 사고유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창의성은 복잡성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자 유일한 대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발휘하고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업무의 근간부터 바꾸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율성의 부여, 자발적 참여 유도, 다양성의 포용 그리고 즐거운 조직 분위기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일사불란한 관료주의 전통 내지 업무표준만을 강조한다면 경쟁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창의성을 강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창립 30주년은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첫 날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삼십의 나이를 '이립 (而立)' 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학문의 기초를 세우고 자립하는 나이' 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좌절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이룩한 성장 또한 '기초를 세우는 과정' 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원익의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와 성공을 거울 삼아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준비를 다 함께 시작합시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적어도 오늘 하루 그 동안 이룩한 성과와 영광의 순간은 서로 축하해 주시고, 자신에게 부족하고 반성할 일이 있었다면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내일부터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과 각오로 새로운 원익 30년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차게 뛰어 나갑시다.

아울러 2011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모두가 혼연 일체가 되어 올해 목표한 일 이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원익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가 있기까지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애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임직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익 회장 이용한

Beyond 30th, Create the future.



INTERVIEW

간추린 원익 30년 | 장기근속 임원들과의 인터뷰

30년 원익의 발전사 도전정신과 투명성이 돋보였다

원익의 발전 속에는 오랜 시간 고난과 영광의 순간을 함께해온 원익원로들의 숨결이 스며있다. 30주년을 맞이해 원익은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역사적인 기록을 짚어보고 직접 경험해온 장기근속 임원들과 대화를 통해 30년 원익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총 다섯 분의 임원이 자리를 빛냈다. 이용복, 안봉훈 고문은 1984년 원일통상 입사해 총 27년을 원익과 함께한 원익 역사의 산증인이다. 정명조 전무는 1986년부터 26년, 강장건 상무는 1988년 24년, 이창진 상무가 1990년부터 20년간 원익과 함께해오고 있다.



이창진 상무



안봉훈 고문

1985년

원일통상의 한국큐엠이(현 원익퀴츠) 인수

이용복 고문

그 당시 사장이신 이용한 회장님께서 반도체 사업의 전망을 높게 평가하시고 관

련 퀴츠웨어에 관심을 가지셨다. 그 당시 퀴츠웨어 제품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고하게 인식하고 계셨다.

84년도부터 반도체 붐이 일어난 89년도까지는 자금과 인력 투자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당시 국산 퀴츠웨어 제품에 대한 시장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도 한 원인이었다.

다섯 임직원들은 젊은 원익인들에게 회사와 함께 동반성장할 것을 주문했고, 동시에 회사도 직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회사와 직원이 하나로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온 원익, 앞으로도 원익은 신뢰, 공정, 투명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금도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다



강장건 상무



정명조 전무



이용복 고문

정명조 전무

당시 원일통상은 GE (General Eletric) 부품과 퀴즈웨어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조사인 한국큐엠이의 가능성을 눈여겨보셨다. 인수 이후 일본 세이노 社에 직원들을 연수보내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 89년도부터 반도체 사업이 활성화의 물결을 타고 원익퀴즈는 본격적인 상

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안봉훈 고문

그 당시 한국큐엠이는 원일 통상의 고객이었는데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도 찾기 힘들었고 국산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리스크로 쉽게 구매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됐다.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다행히 원일통상이 인수를 하고 적극적인 투자한 결과 89년부터 그 성과가 나타났다. 그 이후로 원익퀴즈는 '퀴즈사관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기술자를 배출해냈다.

강장건 상무

연간 매출액이 2배 이상 급속도로 성장한 92년도부터는 거의 6개월 물량 쌓여서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했다. 직원들이 집에도 못하고 공장근처에 집을 구해 잠을 자야할 정도였던 걸로 기억한다.

1989년

국세청장 표창과 96년 재무부장관상을 수상

정명조 전무

국세청장 표창과 재무부장관상은 신뢰, 투명을 강조한 원익의 정신이 반영된 의미 있는 수상이었다. 당시 수입 금액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어서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오면 당연히 숨긴 내역을 찾을 정도였다. 그러나 '기업은 돈을 번 만큼 세금을 내야한다'는 이용한 회장님의 원칙은

완고하셨다.

안봉훈 고문

그 이전부터 이용한 회장님은 회사자금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작은 내역까지 모두 신고하는 등 투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 덕분에 국세청장 표창과 재무부장관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투명 없이는 회사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기업 이미지가
지금 원익을 윤리적인 기업으로 인정받게 해줬다



이창진 상무

예전에는 회의실이 작아서 경영회의를 교육문화센터에서 발표를 했는데, 말단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회사의 한 해 수익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었다. 아직 신입일 때라 편법이 만연해있는 당시의 기업분위기 회사의 경영방침이 조금 의아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투명한 기업 이미지를 얻고 성장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회장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안봉훈 고문

90년대 초반부터 이용한 회장님께서 신뢰, 공정, 투명성을 언급해오셨다. 이후 97년 KOSDAQ 상장 이후 상호를 변경하면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의 원익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익, 원익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익을 나누자'는 뜻이 있는데, 이때부터 기업윤리가 대외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생각한다.

이용복 고문

원익의 발전에는 투명이 가장 큰 몫을 했다. "투명 없이는 회사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이용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때부터 만들어진 기업 이미지가 지금 원익을 윤리적인 기업으로 인정받게 해줬다.

이창진 상무

당시 90년에 입사하면서 사훈을 보니 신뢰, 공정, 투명 밑에 '풍요를 공유하자'라는 문구가 있었다. 처음에는 신뢰, 공정, 투명보다 '풍요를 공유하자'에 더 눈길이 갔지만 신뢰, 공정, 투명이 없이는 발전도 풍요도 없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1992년
한국특수조명의 설립, IPS, ATTO 인수의 발판

안봉훈 고문

1988년도에 외국계 조명회사 오슬람(Osram)에서 '오슬람-원익'을 제안했었다. 원익의 조명사업을 접고 부회장직을 제안했던 것인데, 이용한 회장님께서 거절하셨다. 이때 수락을 하셨으면 원익이 조명회사로 자리 잡았을 거다. 그리고 만든 것이 한국특수조명(VLK)이다. 미국의 특수조명회사 VL과 협의해서 90년대 80% 국산화를 이루는 등 선전했다. 이후 조명사업의 글로벌화를 인식하시고 사업 비중을 축소하셨다. 조명사업을 통해 IPS, ATTO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이후 인수의 발판을 마련했다.



2004년
IPS의 Solar Cell 사업에 진출, 일본수출

정명조 전무

ALD와 반도체 장비를 만들어가는 중, 2003년쯤 반도체 경기에 침체가 왔었다. 이미 물량을 만들어둔 상태에서 수주할 곳이 없어서 활로를 찾던 중 일본 '교세라'에서 Solar Cell 주문의뢰를 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기술적인 배경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술력이 있었던 IPS이기에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기술개발에 게을리 하지 않은 결과였다. Solar Cell 제품으로 만족시키는 한편 생산성을 30% 가량 향상시켜주자 '교세라'는 계속해서 IPS를 찾아왔다.

2004년

IPS의 기술개발 경진대회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

정명조 전무

삼성전자와 함께, 당시 ALD 공법을 반도체에 접목 시켰는데 당시 세계 1위 기업도 해내지 못한 기술개발을 IPS는 1년 만에 해냈다. 이를 계기로 IPS는 기술력을 선도하는 기업의 대열에 올라섰다.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IPS는 기술개발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를 계기로 IPS 직원들은 상당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2005년

ATTO의 인수

정명조 전무

IPS와 비슷한 반도체 제조용 장비업체인 ATTO의 인수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다. IPS는 기술력 부분에서 강

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ATTO의 인수에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이용한 회장님의 생각은 달랐다. “당장 자금 사정이 어려워 힘든 상황이지만 넉넉한 자금력이 뒷받침 된다면 그 때는 시장에서 누가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현명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지금은 반도체 장비 중에서는 에치(etch)를 빼놓고 종합적인 생산이 가능한 회사로 거듭났다.

~2005년

원익퀵츠의 미국, 독일, 대만 등 현지법인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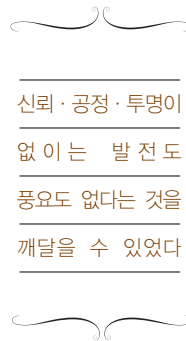
강장건 상무

이용한 회장님께서서는 당시 ‘제조업으로서 세계 1위’라는 목표를 가지셨다.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1996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1위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년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최초로 미국에 해외진출을 하고 2001년도에 유럽공장을 세우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셨다. 국내 매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도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하게 된 배경이 됐다.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1위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신뢰 · 공정 · 투명이
없이는 발전도
풍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2006년

LCD 장비 출시와 이후 LED 사업까지의 전망

정명조 전무

당시 LCD 장비분야는 외국 기업이 독점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기술적으로 짧은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LCD 장비의 시제품을 개발하고 승인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았다. 이후 8세대 LCD Etch 장비 개발을 동시에 해냈다. 현재 8세대 쪽은 시장 점유율이 80%로 IPS가 앞섰다. 안타깝게도 LCD 분야가 너무 빨리 유행이 지나가면서 큰 이득은 못 봤지만, LCD Etch와 Metal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현재 LED는 AMOLED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LCD와 기술적인 부분이 다르지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에 공장부지 확보와 연구 설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다섯 임직원들은 원익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오래전 일이지만 찍어둔 사진을 보면서 예전의 기억들은 생생한 듯 만감이 교차하는 분위기였다. 다섯 분 각각 기억에 남는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인정을 받았을 때”를 손꼽았다. 아직은 신성기업이었던 원일통상시절 고객에게 기업설명을 수도 없이 해야 했던 안봉훈 고문의 이야기나, 자금난으로 은행권 사람들과 겪었던 어려운 기억을 떠올린 정명조 전무의 이야기 등 원익의 역사에는 어려운 때가 항상 있어왔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으

면서도 원익은 도전정신을 잃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강한 자신감을 얻었다. 모든 과정들이 있었기에 원익은 30년 동안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다섯 임직원들은 젊은 원익인들에게 회사와 함께 동반성장할 것을 주문했고, 동시에 회사도 직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회사와 직원이 하나로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온 원익. 앞으로도 원익은 신뢰, 공정, 투명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금도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다.



Beyond 30th, Create the future.



BEST NEWS

원익 BEST NEWS

열정과 도전으로 열어온 30년!

1981·10 | 의료기기 유통업체 원일통상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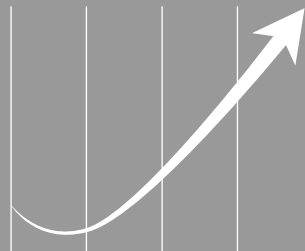
1981년 10월, 주식회사 원익의 전신인 원일통상을 설립하여 의료 및 조영기기를 수입, 판매하는 무역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1984년 원익통상(주)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1985년 반도체 관련 부품 중 하나인 석영유리용기 (Quartz Ware)를 제조, 판매하는 (주)한국큐엠이의 경영권을 인수, 본격적인 퀴츠웨어사업을 시작하면서 유통업에서 제조업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일본 및 미



1 | 의료기기 유통업체 원일통상 설립

Wonik History

태동기	준비기	성장기	도약기
1981	1992	1998	2005
1991	1997	2004	



1980年代

- 1981. 10 | 의료기기 유통업체 원일통상(현 원익) 설립
- 1983. 10 | 한국큐엠이(현 원익퀴츠) 설립
- 1984. 10 | 원일통상 법인전환
- 1985. 10 | 퀴츠웨어 제조업체인 한국큐엠이 경영권 인수
- 1986. 06 | 원익퀴츠, 퀴츠웨어 시제품 생산
- 1989. 03 | 원익통상, 국제청장 표창

국 등에 석영사업 부문을 수출하였으며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 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 받았다. 이후 원익은 의료장비, 산업원자재, 조명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2 1985·10 | (주)한국큐엠이
경영권 인수

1981년 무역회사 원일통상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면서 제조업 진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을 물색하던 중 한국큐엠이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다. 당시 원일통상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 (GE)사의 석영유리(Quartz)부문 한국에이전트를 맡고 있었고 더욱이 퀴즈, 특수램프 분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퀴즈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보였다.

처음에는 일본의 동경석영초자(TOKYO SHEKIEI)란 회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키로 하고 부지를 물색하던 중 한국큐엠이가 부도직전이란 소식을 접하고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큐엠이는 당시 재미교포가 운영하던 미국의 실트로닉스사와 오충근이란 개인의 합작계약을 체결, 83년 10월에 퀴즈제품 생산업체로 설립된 회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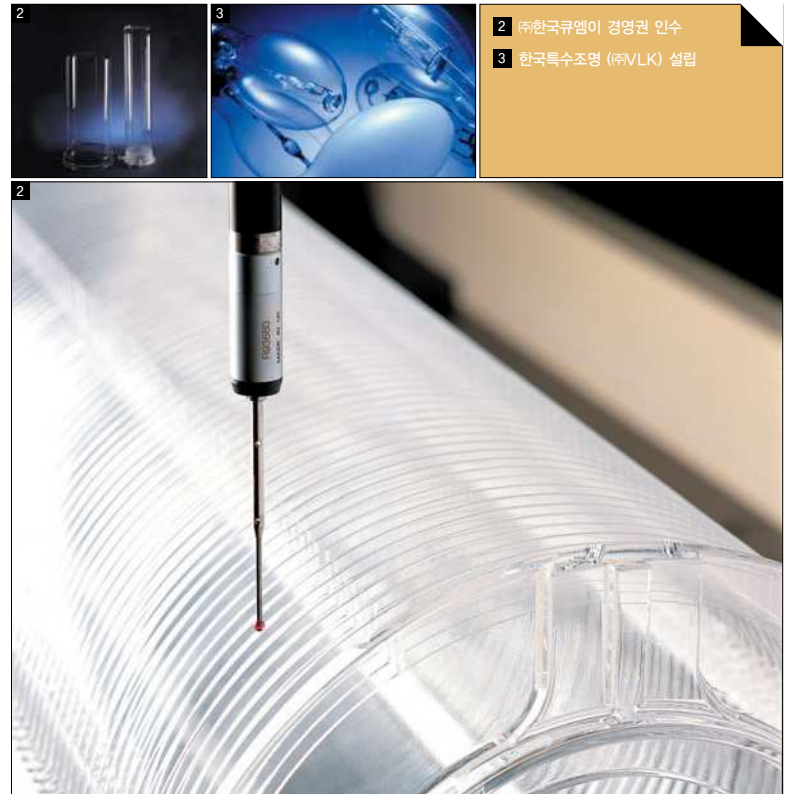
원일통상은 퀴즈웨어 제조업체인 (주)한국큐엠이를

인수하여 본격적인 반도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3 1992·05 | 한국특수조명
(주)VLK) 설립

1988년 원익은 외국계 조명회사 오슬람 (Osram)의 조명사업 협력 제안을 거절하고, 그 이후 자체적인 조명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특수조명을 설립하였다.

이후 미국 특수조명회사 VL과 협력하여 90년대 조명사업의 약 80% 국산화를 이루는데 성공했다.



1990 年代

- 1992. 05 한국특수조명(VLK)설립
- 1994. 12 한국큐엠이 상호변경(원익석영)
- 1996. 09 원익퀴즈, 대만 합작법인 설립
- 1997. 07 원익, KOSDAQ 등록
- 1997. 09 원익텔콤(현 위닉스) 설립
- 1998. 05 DVICO 설립
- 1998. 07 원일통상 상호변경(원일통상 → 원익)
- 1998. 09 Venture Capital 회사인 한미열린기술투자 인수
- 1999. 11 반도체 제도용 장비업체인 IPS 경영권 인수
- 1999. 12 금융컨설팅 전문업체인 호라이즌캐피탈 설립

2000 年代

- 2000. 05 위닉스, 위성방송수신기 사업부문 인수
- 2001. 03 원익퀴즈, 유럽 현지법인 설립
- 2002. 05 종합건설업체인 신원종합개발 경영권 인수
- 2003. 07 신원종합개발, 경기도 건축문화상 대상 수상
- 2003. 09 DVICO, 세계 최초 소프트웨어 방식 HDTV 수신카드 출시
- 2004. 01 신원종합개발, 아침도시 브랜드 발표
- 2004. 05 IPS, 국내최초 Solar Cell 장비 일본 수출
- 2004. 06 IPS, 미국 현지법인 VESTA 설립
- 2004. 07 신원종합개발, 레저숙박시설 운영업체인 신원레저개발 설립
- 2004. 09 IPS, 한국반도체 기술개발 경진대회 대상 수상
- 2005. 08 원익퀴즈, 미국 현지법인 경영권 인수

1998년에는 벤처라이팅코리아 (VLK, Venture Lighting Korea)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메탈할라이드램프, 자동차, 반도체, LCD 용 램프를 자체 개발 생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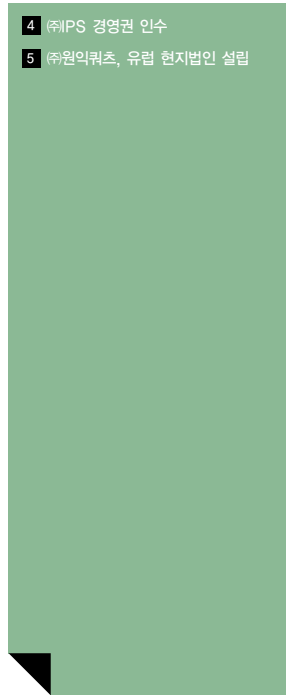
이후 조명사업을 통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와의 인연을 맺게 되어 반도체 장비업체의 인수의 발판이 되기도 하였다.

4 1999·11 | (주)IPS
경영권 인수

원익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업체인 (주)IPS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반도체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주)IPS는 2004년 국내 최초로 태양전지 공정용 화학

증착장비와 식각장비(Etcher)를 일본에 수출하고 같은 해 한국반도체 기술개발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 및 대상 등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반도체 장비분야에 인정을 받으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2005년 12월에는 KOSDAQ 등록하여 차세대 반도체 사업에 보다 활발한 투자가 가능하게 되고,



2000 年代

- 2005. 11 IPS, KOSDAQ 등록
- 2005. 12 반도체 제조용 장비업체인 ATTO 경영권 인수
- 2005. 12 IPS, 무역의 날 U\$10백만 수출탑 수상
- 2006. 03 IPS, LCD 장비 출시
- 2006. 10 미국 무역업체인 International Importers Inc. 인수
- 2006. 12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인 원익머트리얼즈 설립(ATTO 기업분할)
- 2006. 12 원익머트리얼즈 설립
- 2007. 01 DVICO, 디지털 비디오 복합기(TVix PVR) 출시
- 2007. 02 원익투자파트너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록
- 2007. 06 원익머트리얼즈, 미국 Voltaix사와 독점 공급계약 체결
- 2007. 06 ATTO, 벤처 1000억 클럽 가입

2000 年代

- 2008. 09 원익엘앤디, 법인설립
- 2009. 04 IPS, Solar Cell PECVD 장비양산
- 2009. 07 ATTO, 산업안전보건권의날 산업포장 수상
- 2009. 10 ATTO, PECVD 장비 100호기 출하
- 2009. 12 IPS, LED 제조용 MOCVD 장비 H/W 개발

원익의 성장에도 큰 기여를 했다.

5 2001·03 | (주)원익쿼츠,
유럽 현지법인 설립

(주)원익쿼츠는 해외사업 본격화를 위해 1996년 9월 대만 합작법인인 WITQ (Wonik Taiwan Quartz Co., Ltd.) 를 설립 이후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 현지 법인인 WIQE (Wonik Quartz Europe GMBH) 를 설립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미국 현지법인 (WIQI : Wonik Quartz International ,Inc.)경영권을 인수 하는 등 (주)원익쿼츠의 해외사업 진출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6 2002·05 | 신원종합개발(주)
경영권 인수

종합 건설업체인 신원종합개발(주) 경영권을 인수하여 건설업에 본격 진출하는 등 사업의 영역을 반도체 장비 제조업에서 건설업까지 확대하였다. 2004년에는 신원종합개발(주)의 자체 브랜드인 '아침도시' 를 발표하여 아파트 건축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2010 年代

- 2010. 03 IPS, CB발행(220억원) 산성전자 인수
- 2010. 08 IPS, 청사 최초 매출 1,000억원 달성
- 2010. 12 (주)원익아이피에스 출범, (주)아이피에스 및 (주)아도 법인 합병

Beyond 30th, Create the future.

7 2005·12 | (주)ATTO
경영권 인수

반도체 장비·특수 가스 업체인 (주)아토를 인수했다. (주)아토는 창사 이래 국내 최고의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하였고 특히 장비 사업 부문에서 국산화 모델 생산에 중심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원익은 (주)IPS에 이어 반도체

제 제조용 장비업체인 (주)ATTO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국내 반도체 장비 제조 및 개발 사업을 본격화 하였다.

8 2006·12 | (주)원익머트리얼즈 설립
(ATTO 기업분할)

반도체 장비, 특수 가스 업체인 (주)아토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특수 가스사업부를 업종 전문화를 위해 기업분할을 하였고 2006년 12월, (주)원익머트리얼즈가 새롭게 태어났다. 반도체 및 TFT-LCD부문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특수가스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수입가스의 국산화를 통한 원가절감, 신기술 개발로 특수가스 공급선 다변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당시 원익머트리얼즈의 독립 법인으로서의 설립은 반도체 업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7 (주)ATTO 경영권 인수
8 (주)원익머트리얼즈 설립 (ATTO 기업분할)

9 2007·02 | 한미열린기술투자(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CRC) 등록

한미열린기술투자(주)(현. 원익투자파트너스(주))는 2007년 2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을 통해 벤처투자 뿐만 아닌 기업 종합금융회사로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기업구조조정업무로서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정상화, 매각,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영업 또는 자산의 매입, ◆금융기간 또는 성업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매입, ◆기업구조조정 조합 자금의 관리 및 운용, ◆기업간 인수합병의 중개, ◆회사정리, 화의, 절차의 대행 등이 있다. 한미열린기술투자(주)(현. 원익투자파트너스(주))는 CRC등록을 계기로 Venture Capital 업무와 함께 명실공히 기업 종합 금융회사로서 거듭 나는 계기가 되었다.

10 2009·10 | (주)ATTO,
PECVD 장비 100호기 출하

2009년 10월, (주)아토가 PECVD 100호기를 출하하였다. 2002년 4월 첫 PE-CVD장비사업을 시작한지 7년여 만에 CVD 장비 100호기를 출하하는 위업을 이루었다.

(주)아토는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선진 제조기술을

- 10 ㈜ATTO, PECVD 장비 100호기 출하
- 11 ㈜원익아이피에스 출범, (주)아이피에스·(주)아토 법인 합병
- 12 ㈜원익머트리얼즈, 코스닥 상장예비 심사 통과



통해 2010년에는 PECVD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반도체 단일제품으로서의 상당한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주)원익아이피에스는 기존 (주)아토·(주)아이피에스의 사업부문을 통합·재정비해 본격적인 도약에 나서며, 이로써 (주)아토 반도체사업 부문 외에 (주)아이피에스에서 진행해온 LCD, 태양광, LED 장비사업을 통합 진행하게 됨에 따라 전공정장비 부문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지난 10월27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주)원익머트리얼즈는 Global 경쟁력을 갖춘 종합소재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신규사업 진출, 기술개발 등 미래성장을 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대외적인 기업 신인도 제고가 가능해졌다.

상장이 완료되면 현재 원익 23개 계열사 중 (주)원익, (주)원익퀵즈, (주)원익IPS, 신원종합개발(주)에 이어 5번째 상장사가 된다.

2011·03 | (주)원익아이피에스 출범, (주)아이피에스·(주)아토 법인 합병

2010년 12월 (주)아이피에스를 합병한 (주)아토가 2011년 3월 (주)원익아이피에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2011·10 | (주)원익머트리얼즈, 코스닥 상장예비 심사 통과

(주)원익머트리얼즈, 코스닥 상장예비 심사 통과

Beyond 30th, Create the future.



30TH FESTIVAL

30주년 기념 행사 | 원익 30주년 한마음 대축제

원익가족이 하나 된 '원익 30주년 한마음 대축제'

원익 30주년 기념행사인 "원익 30주년 한마음 대축제"가 10월 13일 천안 상록 리조트에서 열렸다.

"Beyond 30th, Create the

future"의 표어아래 그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룬 30년을 높이 평가

하고 다가올 미래의 30년을 준비

하는 원익 가족의 새로운 출발과

도전을 다짐하는 각종 행사와 체육

대회가 다양하게 진행됐다.

원익 30주년

한마음대축제는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식전행사 시간을 가지고 즐기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대운동장에 모인 원익가족들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서로 어깨를 안마해주면서 어색함을 자연스럽게 지워갔다. 가벼운 스킨십으로 몸과 마음을 풀어내자 이어서 '두드락'의 오픈 공연

이 이어졌다. 두드락은 원익 30주년을 기념해 30개의 북으로 공연을 준비했고 흥겨운 가락 연주와 함께 박수를 유도해 호응을 이끌어냈다. 원익가족들도 리듬에 맞춰 조금씩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이어서 국민의례와 함께 이용한 회장의 개회 선언이 이어졌고 본격적인 30주년 공식 행사가 뒤를 이었다. 행사에 앞서 이용한 회장은 "아침부터





수고가 많았다. 원익가족이 다 같이 모이게 돼 정말 반갑고 30주년 행사에 참석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용한 회장은 신뢰, 투명, 공정을 지켜온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30년은 더 훌륭한 회사로 성장시켜 임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

겠다.”는 말로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이용한 회장과 김대유 부회장, 이문용 부회장을 비롯한 각 계열사 사장단, 임원 소개에 이어 원익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화려한 영상물이 상영됐다. 원익의 역사적인 사건과 발전상을 담은 영상물은 웅장한 분위기에서 상영돼 많은 원익가족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이후 ‘두드락’의

축하 공연과 함께 원익 30주년 기념하는 화려한 조형물 퍼포먼스와 성화 점화식이 거행되었고 행사는 본격적인 체육대회로 넘어갔다. 30주년의 의미를 담은 문구인 ‘도전, 열정, 창조, 혁신’의 이름으로 4개 팀을 구성한 원익가족은 O, X 퀴즈로 가볍게 컨디션을 조절했다. O, X 퀴즈는 눈치 싸움이 치열했던 가운데 마지막 문제에





소신껏 답을 선택한 (주)원익퀴즈 문대진 사원에게 퀴즈왕의 영광이 돌아갔다. 곧이어 응원전과 함께 축구, 피구 같은 구기종목과 씨름 대결이 이어졌다. 원익가족은 선의의 경쟁을 벌이면서 일상의 생활을 벗어나 축제의 분위기에 한껏 빠져들었다. 체육대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천막과 함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

설포장마차를 주변에 두어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중식시간에 즐길 수 있는 중식 이벤트를 준비해 지루하지 않은 구성이 돋보였다. 중식 이후 진행된 명랑운동회는 팀별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며 손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장애물 통과, 밧줄 당기기 등, 경기를 하며 원익가족의 협동력은 빛을 발했다. 특히 마지막

계주경기가 혁신 팀의 대역전으로 끝이 나자 모든 원익가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만끽했고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훈훈했다. 이어서 진행된 장기자랑은 그 동안 감춰왔던 원익인의 끼를 표출하는 시간이었다. '갈갈이 박준형'의 맛깔스러운 진행 속에서 신원종합개발(주)은 25명이 하나되서 부르는 멋진 아카펠라 하모니를 만





들었고 (주)위닉스는 혼성 6인조 댄스로 원익가족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주)원익은 절도 있는 검도시범에 코믹한 요소를 가미하여 많은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유명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무한도전 유명한 서해안고속도로가요제'를 따라 한 '원익 중부고속도로가요제'를 선보여 멋진 댄

스무대를 준비했고, (주)원익퀴즈도 19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으로 댄스와 합창을 선보여 많은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또한 (주)원익아이피에스는 회사의 합병을 줄거리로 구성해 연극요소를 가미시킨 합창을 선보이며 세련된 공연을 보여주었다. 이 후 원익 30주년을 축하하는 가수들의 무대가 이어졌다. 가수 변진섭은 자신의 히트곡 '희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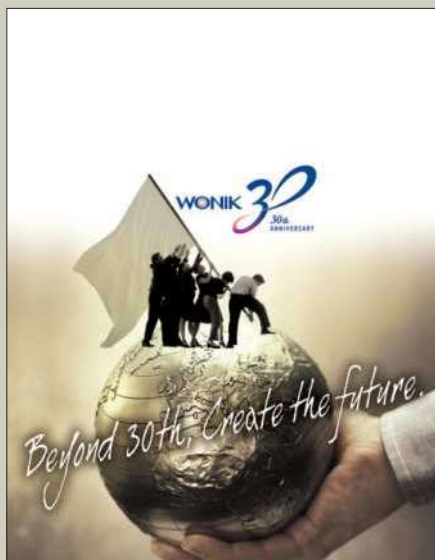
향, '새들처럼', '너에게로 또다시'를 열창했고 노브레인도 '라디오 라디오(Radio Radio)', '비와 당신', '넌 내게 반했어', '짧은 그대' 등을 불러 원익인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이끌었다. 공연동안 생맥주와 바비큐를 즐기면서 원익가족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축제를 마음껏 즐겼다.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체육대회와 장기자랑 시상식이

이어졌고 누가 승자라고 할 것 없이 원익가족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박수갈채를 보냈다. 끝으로 한마음대축제를 마치며 이용환 회장은 "최선을 다해 즐겼고, 앞으로 30년 다같이 만들어가자."고 축제를 마무리했다. 원익 30주년 한마음 대축제가 마무리되면서 하늘에는 화려한 불꽃들이 솟아올랐다. 화려하게 피어나는 불꽃을 바라보는 원익가족

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꿈이 생겨났을 것이다. 원익가족들은 도전, 열정, 창조, 혁신의 기치아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원익은 30년을 되돌아보고 회사에 대한 긍지를 높이는 한편 희망찬 내일을 주인공이 되기 위해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글 김도웅 · 사진 조인기





COVER STORY

- 24 **Wonik News** 원익 30주년 한마음 대축제 개최
- 28 **CEO Column** 스스로 만드는 기업문화가 좋은 기업문화
- 30 **Discovery of Baduk** 제7기 원익배 십단전 개막식

WONIK NEWS

원익

원익 반도체 3사 세덱스 참가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는 국내 최대의 IT 전시회인 '국제반도체대전(i-SEDEX)'이 나흘간 열렸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국제반도체대전(i-SEDEX)'에는 총 6개국 160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기술과 제품

을 소개했다. 원익에서는 (주)원익쿼츠와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원익머트리얼즈 등 3개 계열사가 전시회에 참가해 뛰어난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진취적인 블루컬러와, 차분한 화이트 컬러로 꾸민 부스는 세련미가 돋보였다. 특히 30주년을

형상화한 엠블렘이 원익부스는 어느 때보다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해 많은 방문객의 눈길을 끌었다. 이용한 회장을 비롯한 (주)원익아이피에스 이문용 부회장, (주)원익쿼츠 박근원 사장, (주)원익머트리얼즈 이준열 사장 등 계열사 대표들은 전시회 첫날 부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3개 계열사가 한 자리에 모인 원익 부스에는 관람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등 반도체 관련 분야에서 원익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이번 전시회는 미래포럼, 정책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기획되어 알찬 구성을 보여주었다. 전시회는 유럽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 5%정도 증가한 2천여 명의 바이어와 6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상담액은 1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국제반도체대전은 '한국전자산업대전'과 '국제정보디스플레이전시회'와 함께 작년부턴 'SMART KOREA'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원익 30주년 한마음 대축제 개최

지난 10월 13일 천안 상록 리조트에서는 원익 전 계열사 임직원들이 함께한 '원익 30주년 한마음 대축제'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30주년에 어울리는 성대한 기념식을 시작으로 모두가 하나된 체육행사와 원익 가족 장기자랑, 특별 가수 축하 공연, 시상식 및 불꽃놀이 순으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원익

인의 단합된 모습을 확인하고 전 계열사 임직원들과 함께 원익3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용한 회장은 지난 30년을 바탕으로 미래의 원익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함께 힘쓰자며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주)원익

(주)원익 차동익 대표이사 취임

2011년 10월 1일자로 차동익 대표가 취임하였다. 차동익 대표는 메디칼R&D부문에서 시작하여 GE Healthcare의 Sales&Marketing부문을 거쳐 27년간 메디칼 부문에 몸담아 왔으며 2008년 1월 (주)원익에 입사하였다. 차동익 대표는 앞으로 고객의 눈높이에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신념하에 고객의 입장에서 항상 신뢰받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1 고객만족(CS)교육 및 비즈니스 에티켓 고객만족(CS)교육

(주)원익은 2011년 10월 17일 대회의실에서 고객만족(CS)교육을 실시 하였다.

참석대상은 메디칼 1,2사업부, 통상사업부 서비스 및 영업담당 약 40여명이 (주)원익 대회의실에서 8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다. 강사는 20여년간 고객만족 분야를 강의해온 여운걸 소장이 맡았다.

이번 교육은 고객의 기대수준과 고객만족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주체적 서비스마인드 및 스킬을 배양하여 차별화된 서비스 문화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7인 1조로 팀을 나누어 역할연기 및 다양한 토론 등, 단순한 강의식 교육이 아닌 체험식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비즈니스 에티켓 교육

(주)원익은 2011년 10월 11일 당사 대회의실에서 09시~11시 2시간 동안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즈니스맨의 올바른 매너 & 에티켓 교육을 실시 하였다. 강사는 아이플러스 아카데미 원장 안영진 강사가 교육을 맡았다. 이번 교육은 비즈니스맨으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자세와 소양, 마인드함양과 회사 내에서 발생 되어지는 예절과 행동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통해 학습하고 이를 통해 회사 내/외부 고객과의 원활한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주)원익쿼츠

구미시 9월 이달의 기업 선정

구미시는 9월, 이달의 기업으로 (주)원익쿼츠를 선정하고 1일, 구미시청 국기게양대 앞에서 남유진 구미시장, 박근원 대표이사 및 직장대표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기(社旗) 게양식을 가졌다. 이 시상은 신뢰, 공정, 투명이라는 경영이념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 '9월의 기업'으로 선정하게 되었다며 관계자가 전하였으며, 이날 박근원 대표이사는 "급격한 변화와 과감한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기업경쟁력의 원천은 오직 새로운 기술축적과 변화를 주도해 나아가갈 도덕적이고 창의성이 넘치는 인재임을 자각하고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기업의 가치 창출 의지를 밝혔다. (주)원



익쿼츠는 지난 5월 한국수출입은행이 주관하는 '골든챔피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청 주관의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는등 지속적

인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기술개발로 지속 성장을 통하여 반도체 부품 소재 소재 전문회사로 성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주)원익쿼츠

PLM 구축 Kick-off 시행

(주)원익쿼츠는 지난 2011년 10월 18일 구미시 구포동 본사에서 지멘스 EX-PLM 국내 공급처인 에스팜 소프트(주) PLM 구축을 위한 Kick-off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TFT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멘스 PLM 소프트웨어의 3D 솔루션인 솔리드 엣지와 EX-PLM Teamcenter를 도입함으로써 혁신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개별적인 데이터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PLM을 통한 최종 유효본 관리를 함으로써 여러 곳에 산재되어있는 DATA BASE를 PLM SERVER라는 기본 플랫폼에 탑재하게 됨으로써 빠른 업무처리와 고객요구

사항 그리고 생산현장에서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됨으로서 향후 제품불량률과 고객 Claim 대응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주)원익쿼츠는 반도체 공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2만여 건에 다양한 석영 부품의 정보와 부품 도면 그리고 개발문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여 지멘스 EX-PLM Teamcenter를 선택하였으며, 시장 선도를 위한 반도체 소재 부품제조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문서 및 데이터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PLM을 구축하고 있다.

신원종합개발(주)

사내문고 '열린문고' 운영 개시

가을을 맞아 신원종합개발(주)는 “책 속에 길이 있고, 독서의 역량이 조직의 역량을 키운다”를 모토로 하여 사내문고 '열린문고' 운영을 개시했다. 직원들의 정서함양 및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한 '열린문고'는 팀장 이상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도서를 기증받아 1차분의 도서로 운영을 개시하였다. 신원종합개발(주)는 향후 꾸준한 '열린문고' 운영 및 직원들의 도서 기증 참여로 소장 도서 확장을 해나가고, 여가시간등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독서역량을 키워 조직역량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주)원익아이피에스

MAHA SP 100호기 설비 출하

지난 8월 9일 (주)원익아이피에스는 진위 본사에서 MAHA SP 100호기 설비 출하를 자축하는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단일 설비 100호기 출하는 국내 장비 업체에서

는 유래를 찾기 힘든 기념비적인 사건으로써, 이는 다년간의 기술력 축적과 지속적인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실현하기 어려웠을 의미 있는 성과다.

이 날 행사에는 이문용 부회장을 포함한 전사 많은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MAHA SP차기 모델의 성공도 함께 기원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지난 9월29일을 시작으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전직원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워크스마트(Work smart) 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워크스마트(Work smart)를 주제로, 기존의 업무관행에서 벗어나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합리적인 업무수행의 최적화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워크스마트(Work smart)를 공간관리 혁신/ 방식관리 혁신/ 지식관리 혁신/성과관리 혁신/시간관리 혁신으로 세분화시켜 각 분야의 활용가치 극대화와 함께 창의적인 혁신 방법을 내용으로 담았다.

이번 교육 과정내 대표이사 및 CCO 특강을 진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일체감 조성과 함께 Work_Smart 과정의 성공을 다짐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준열 대표는 “앞으로도 전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의 기회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답하고,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주)원익머트리얼즈는 2011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직원 의식 개혁을 위한 꾸준한 투자와 함께, 워크스마트(Work smart)를 통한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스킬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과 함께 smart한 혁신을 적극 기대해본다.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원익투자파트너스(주)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관리하고 있는 KIF(Korea IT Fund)의 자조합 운영사로 선정되어 지난 7월 29일 업무집행조합원 협약식을 갖고 KIF펀드 운영을 시작했다.

원익투자파트너스(주)는 KIF에서 170억원, 중국 2위 게임사인 산다의 100% 자회사인 아이덴티티 게임즈에서 80억 등을 출자받아 총 300억원 규모의 '2011 KIF-원익 IT Fund' 를 9월 30일 결성총회를 갖고 10월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조합준속기간은 2018년 9월이며 대표펀드매니저는 최중화 상무가 맡았다.

KIF-원익 IT Fund는 최근 새로운 Paradigm 변화를 일으키며, 초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게임을 비롯한 Mobile/Contents/Internet Service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며, 동 분야는 신규 Biz 창출 및 Star기업 출현 등 많은 투자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Shanda Games는 중국

온라인게임시장에서 Tencent에 이어 시장점유율 약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투자대상업체 공동발굴, 투자, 퍼블리싱 기회제공 등 투자대상 업체에게 다양하고 강력한 Synergy effect와 Value-Up Tool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집행조합원(GP)인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역시 온라인게임을 비롯한 Mobile IT분야에 우수한 Track-Record를 기반으로 투자업체에게 다양한 Value-Up activity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본 KIF-원익 IT Fund를 위하여 게임 및 Mobile IT 분야에 탁월한 Track-Record를 보유한 최중화 상무를 대표펀드매니저로 선정하고 관련분야의 핵심 운용인력을 배치하였으며, 해외 게임시장의 전문인력을 영입하는 등 최적의 운용팀을 구성하여 ①규모 있는 투자자금, ②최적의 운용팀, ③막강한 해외 Biz Partner 영입 등 조합결성 및 관련분야 투자에 따른 탁월한 성과(예상 연평균 IRR 20%) 실현을 위한 최적의 기반을 마련 하였다.



스스로 만드는 기업문화가 좋은 기업문화



“신뢰를 바탕으로 전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업 문화가 좋은 기업문화죠. 그렇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스스로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우리 원익머트리얼즈의 기업문화상입니다.”

CEO가 먼저 소통의 문화를 만든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이준열 사장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기업문화야말로 가장 좋은 기업문화라고 말한다. 이러한 철학으로 이 사장은 늘 모든 일에 직원들과 함께 움직이고, 벽이 없는 소통의 문화를 만드는 ‘Companion 리더’, ‘Partner 리더’를 자처해왔다.

직원들이 한 회사의 오너와 함께 점심을 먹고, 퇴근 후 회식자리를 함께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사장에게는 직원들과의 점심식사나 회식이 그다지 큰 이벤트가 아니다. 인터뷰가 있던 날도 이 사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직원들과 섞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고, 저녁에는 직원들과 함께 ‘+YOU FUNNY DAY(Hof데이)’를 갖고 시원한 맥주 한 잔에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뿐만 아니라 (주)원익머트리얼즈에서는 다달이 칭찬프로그램(WIMCO 미소천사)을 통해 뽑힌 직원이 이 사장과 개별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또 매달 생일을 맞은 직원을 축하하고, 결혼기념일을 맞은 직원에게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보내는 것도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는 일이다.

“지난번에는 칭찬자 직원 부부와 저녁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직원이 결혼기념일이었던 거예요. 직원 와이프가 많이 감동한 모양이에요. 낮에는 케이크와 꽃바구니를 선물 받고, 저녁에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 사장이



“ 원익인의 열정은
우리 원익을 푸른 숲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



밥을 산다니까”

이렇듯 이 사장의 직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 하나하나가 (주)원익머트리얼즈의 분위기를 한층 활기차게 만들고 있다. “위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실천해야 기업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사장. 그는 직원들에게 바람직하고 고유한 기업문화를 심어주는 덕장으로서의 역할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누구보다 크게 느낀다. 때문에 직원들에게 무조건 기업문화를 강요하기보다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함께 만드는 기업문화’를 통해 (주)원익머트리얼즈의 조직에너지를 결집시킬 계획이다.

함께 만드는 기업문화, 훌륭한 일터 만들기

현재 (주)원익머트리얼즈가 실시하고 있는 기업문화 프로그램 중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도 가족과 함께 하는 ‘하모니 페스티벌’이다. 전직원가족들이 모여 한 마음 한 가족이 되는 뜻 깊은 자리다. 올해부터는 ‘하모니 페스티벌’을 5월 5일 어린이날로 지정, 직원 자녀들을 즐겁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직원가족에게 직장에 대한 만족과 애사심을 심어줬다. 이 외에도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신규입사자 선물제공, 한마음 등반대회, 전사 봉사활동 등 다양한 기업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훌륭한 일터(GWP:Great Work Place)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훌륭한 일터’란 신뢰, 자부심, 재미가 함께 하는 일터입니다. 그 훌륭한 일터

의 기업문화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우리 원익머트리얼즈가 훌륭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서로 신뢰하고 헌신하면서 회사에 자부심을 가져야해요. 앞으로 (주)원익머트리얼즈가 ‘다니고 싶은 회사’, ‘자랑스러운 회사’, ‘즐겁게 일할 맛 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익인이여, 열정을 가져라

여기에 덧붙여 이 사장이 강조하는 가치는 ‘열정’이다. 지난 2006년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한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지난 몇 년 간 후발주자와 국내기업이라는 한계를 딛고, 그 어느 경쟁업체보다 신속한 대응과 우수한 품질로 고객만족을 실천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는 직원 개개인의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라는 것이 이 사장의 생각이다.

“열정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열정이 넘치는 기업은 뿌리가 튼튼한 기업과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넘치죠. 건강하고 훌륭한 기업문화 또한 직원들의 열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원익인의 열정은 우리 원익을 푸른 숲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이 사장은 기업문화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원익인 모두가 기업문화 개선에 관심과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십단전이 시작되었다. 일곱 번째 십단(十段) 타이틀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제7기 원익배 십단전 개막식이 지난 9월 2일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열렸다.

개막식에는 대회를 후원하는 원익의 조용래 기획조정실장 겸 신원종합개발 대표이사를 비롯해 공동주최사인 경향신문사의 정동식 전무, 바둑TV 김계홍 사장과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기원 양재호 사무총장, 그리고 예선에 참가하는 기사 등 200여명이 참가해 십단전의 일곱 번째 개막을 축하했다.

원익 조용래 기획조정실장은 개막 축사로 “세계 최고 기량의 우승자를 배출한 원익배 십단전은 국내 최정상급의 본격 기전으로 발전했다.”며 “또 한 명의 십단 배출을 기대하면서 그룹 차원에서 최대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또한 경향신문의 정동식 전무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한 원익배 십단전이 짧은 기간 동안 국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기전으로 자리잡아 무한한 자긍심을 갖는다”면서 “온 국민이 사랑하는 스포츠와 여가로 바둑이 정착할 수 있도록 경향신문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원익배 십단전은 지난 대회부터 56강 토너먼트로 확대되었으며, 본선 토너먼트는 차등 시드제로 열린다. 통합예선을 통과한 51명과 본선시드 5명 등 56명의 본선 진출자들은 피라미드 토너먼트로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되며, 결승은 3번기로 치러진다.

전기 4강에 든 이세돌, 강유택, 이영구, 박정환이 본선시드를 받았으며, 후원사 시드는 이창호가 받았다. 이렇게 본선 시드는 총 5명으로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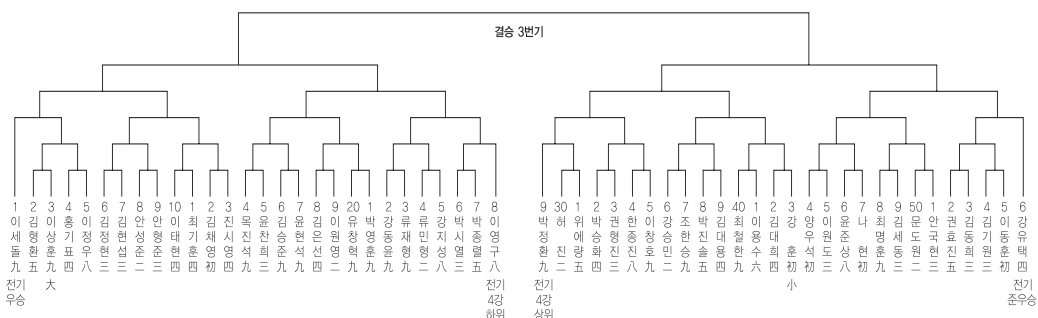
한편, 전기 대회에서는 이세돌이 강유택에게 2-1로 승리하며 십단 타이틀을 땀다. 당시 이세돌이



차지하지 못했던 타이틀이 유일하게 원익배 십단전이었기에 전기 대회는 이세돌 본인에게 무척 의미 깊은 대회였으며, 원익배 십단전 타이틀을 얻으며 국내 기전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모든 기전을 정복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것은 한국 바둑사에서 조훈현 9단과 이창호 9단에 이은 대기록이었다.

경향신문사와 (주)바둑TV가 공동 주최하고 원익이 후원하는 제7기 원익배 십단전은 총규모 4억원, 우승상금은 5000만원, 준우승상금은 2000만원이다.

제7기 원익배 十段戰 본선 대진표(2011년~)



역대 우승자

회수	연도	우승	전적	준우승
1기	2006	이창호 9단	2 - 1	박영훈 9단
2기	2007	안조영 9단	2 - 1	백홍석 5단(세)
3기	2008	이창호 9단	2 - 0	목진석 9단
4기	2009	박정환 3단(세)	2 - 0	백홍석 6단(세)
5기	2010	박정환 5단(세)	2 - 1	이창호 9단
6기	2011	이세돌 9단	2 - 0	강유택 4단

세계 초우량 기업을 향해가는 원익인의 DREAM . PASSION . CHALLENGE

SECTION 01 Dream



34 **Wonik Training Program**
CEO 리더십 과정, 임원 리더십 과정, 팀장 리더십 과정 등 3개 과정 실시
2011년 하반기 원익 리더십 교육 실시



32 **Special Edition**
2011 국제반도체대전(i-SEDEX)
30년 원익의 역사와 국산화 기술력이 돋보였던 전시회

36 **Power of Wonik Technique**
TGS 본부 장치사업팀 개발파트 김성훈 부장과 팀원들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 제품을 만들어낸다



38 **Wonik Dissertation**
Emerging Memory 기술동향
(주)원익아이피에스 하형찬 상무



반도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성과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이번 전시회에서 원익은 30주년을 맞이해 국산화로 이루어낸 성과와 함께 뛰어난 기술력과 최고 성능의 장비를 소개하며 그간의 성과를 마음껏 보여줬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원익은 3개사의 소개와 함께 그 동안의 발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연혁을 배치해 특징을 세심한 부분까지 조화와 통일성을 동시에 이끌어냈다. 특히 새롭게 태어난 (주)원익아이피에스는 유기적인 구성을 통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시회 첫날에는 이용환 회장을 비롯한 (주)원익아이피에스 이문용 부회장, (주)원익퀴츠 박근원 사장, (주)원익머트리얼즈 이준열 사장 등 각 계열사 대표들이 직접 부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어느 때보다 분주한 모습이었다.

원익의 3개 계열사는 원익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미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최신 기술을 조망하는 한편 전시회를 통해 적극적인 제품 설명과 홍보를 펼쳤다. 30주년 엠블럼으로 꾸민 부스는 화려함과 동시에 알찬 구성으로 반도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원익의 뛰어난 발전상을 보여주었다. 전시회 기간 내내 원익의 부스에는 LED, 퀴즈웨어 등 반도체 관련 회사 및 장비제조사 등에서 온 방문객의 문의와 상담이 이뤄졌다.

30년 원익의 역사와 국산화 기술력이 돋보였던 전시회

국내 최대의 반도체 산업 전시회 "국제반도체대전(i-SEDEX)"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됐다. 지식경제부 주최로 이번 전시회에는 총 6개국 160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소개했다. 30주년을 맞이한 원익은 (주)원익퀴츠와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원익머트리얼즈 등 3개사가 참가해 뛰어난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장비 제조 기술 국산화 한층 성장한 모습 선보여

이번 전시회에서도 원익은 국산화에 성공한 반도체

장비 제조 기술을 한층 성장한 모습을 선보였으며, 특히 여러 고객의 방문이 잇따르는 등 관심이 끊이지 않았다.

(주)원익아이피에스는 (주)아이피에스와 (주)아토의



제품들을 보이며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30주년을 맞이해 기술력과 더불어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신뢰받는 원익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많

기술력을 한 데 모아 한층 다양한 제품 라인을 구성해 전시회를 돋보이게 했다. 세계 최초의 ALD(Atomic Layer Deposition) 시스템이 적

용된 반도체 공정기술과 태양전지(Solar Cell), 8세대용 드라이에처(Dry Etcher, 건식 식각장비)와 같은 핵심기술은 물론 MAHA-HP의 후속

기존 장비보다 생산성이 월등히 향상돼 그 기술력을 검증받은 제품이다. 이밖에도 300mm 장비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

(주)원익퀴츠는 국내 퀴츠웨어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는 명실상부한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한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 3대 퀴츠웨어 공급업체로 손꼽히고 있다. 비산화물 퀴츠웨어 생산기술이 뛰어난 (주)세라코를 인수해 더욱 완성도 있는 제품 생산력을 갖추게 됐다. (주)원익퀴츠는 이번 전시회에서 이번 전시회에서 반도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내열성, 내구성, 내식성이 뛰어난 제품들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반도체 생산공정 조건이 난해해질수록 고집적 기술력을 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주)원익퀴츠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반도체 및 TFT-LCD 공정용 특수가스 전문제조업체 (주)원익머트리얼즈는 그동안 NH₃, N₂O, CO, PH₃ 등의 고순도 및 특수가스와 수소, 산소, 헬륨, 아르곤 등의 혼합가스를 제조 공급하면서 특수가스업체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반도체, LED, FPD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고순도 특수가스를 생산 공급하는 과정을 도표와 그림으로 전시해 이해를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주)원익머트리얼즈는 국산기술력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투자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는 반도체 관련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해외 바이어 2천 명을 포함해 6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고 약 17억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제반도체대전은 작년에 이어 제2회 'SMART KOREA 2011'로 진행돼 '한국전자산업대전'과 '국제정보디스플레이전시회'와 함께 더욱 성대하게 개최되고 있다. 행사는 미래포럼, 정책 컨퍼런스로 알차게 구성되어 우리나라 최대의 IT 종합 행사로 치러질 계획이다.

모델인 MAHA-MP(PE-CVD)와 개발과 양산을 성공적으로 마친 AKRA(Metal-CVD)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품을 소개했다. 특히 AKRA의 경우

내고 LED 관련 산업에도 빠르게 적응하는 등 (주)원익아이피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Wonik Training Program

CEO 리더십 과정, 임원 리더십 과정, 팀장 리더십 과정 등 3개 과정 실시



2011년 하반기 원익 리더십 교육 실시

2011년도 상반기 실시된 "신규입사자 과정, 팀장 리더십 과정, 임원 리더십 과정"에 이어 9월 임원 리더십 과정과 10월 CEO 리더십 과정, 팀장 리더십 과정 등 3개 과정이 실시 되었다.

9월 실시된 CEO 리더십 과정은 각 계열사 대표 이사직을 수행하는 CEO를 포함한 주요 임원 15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전략적 의사결정 Process 및 변화/혁신 심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되었다. 10월 실시된 임원 리더십 과정은 상반기 실시된 과정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 되는 과정으로 상반기 교육에 참석하지 못

한 인원 22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임원 리더십 과정에서는 상반기 교육 내용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실천항목인 창의성/치열함/도전/열정 마인드 향상은 물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방안 및 나와 조직의 변화를 통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

어 졌다. 하반기 실시된 CEO 및 임원 교육 과정에는 원익 최고 경영자이신 이용한 회장께서 직접교육장을 방문하여 만찬 및 교육생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교육 마지막 날에는 직접 교육 과정에 같이 참석하여 교육에 참석한 모든 임원들을 격려하였다.



CEO 리더십 과정

9월 21일부터 2박 3일 과정으로 실시된 CEO 리더십 과정은 도전적 경영환경과 전략경영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현업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전략적인 마인드 고취는 물론 글로벌 리더십의 중요성까지 다양한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력 운영을 위한 통섭에 기반한 비전 수립 내용도 교육에 반영되었다.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CEO 리더십 과정은 지속성장 및 위대한 기업 (Great Company)을 위한 훌륭한 리더 (Great Leader)의 요건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 요소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10월 4일부터 3박 4일 과정으로 실시된 임원 리더십 과정에는 각 계열사 임원진 22명이 참석 하였으며, 행복한 일터 만들기과 변화하는 나, 창의성/치열함/도전/열정 이라는 주제로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지속성장 및 위대한 기업 (Great Company) 을 위한 훌륭한 리더 (Great Leader) 의 요건 등을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 되었다.

특히, 여러 계열사의 임원들과 팀을 형성하여 각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과제 해결을 위한 역할 수행 등 이론강의 보다는 실습을 통한 실행력 강화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평소 만날 기회가 없었던 타 계열사 임원들과의 Networking 등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임원 리더십 과정

팀장 리더십 과정

10월 25일부터 3박 4일 과정으로 실시된 팀장 리더십 과정에는 각 계열사 팀장급 직원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 능력, 변화/혁신 주도, 전략적 사고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특히 2011년도부터 실시되는 팀장 리더십 과정은 '성공하는 리더들의 7가지 습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리더십 센터가 주관하는 7 Habits 교육이 실시 되었다. 또한 2011년도 원익 기업문화의 Key-word 로 강

조하고 있는 창의/창조력 향상을 위한 내용과 도전/열정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이루어졌으며 교육 참석자들간의 친목 및 네트워크 향상을 위해 별도 Outdoor Activity 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9월, 10월 실시된 임원 리더십 과정 및 팀장 리더십 과정을 끝으로 2011년도 리더십 교육 과정은 모두 종료 되었으며, 2012년도에도 신규입사자 과정을 비롯하여 각 계열사 계층별 리더십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Power of Wonik Technique

TGS 본부 장치사업팀
개발파트 김성훈 부장과 팀원들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 제품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개발은 모든 제품을 구성하는 중요한 첫 단계다. (주)원익아이피에스 TGS(Total Gas Solution)본부 개발파트에서는 많은 노하우와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 생산은 물론 뛰어난 기술력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달 9월에 (주)원익아이피에스에 소속 TGS본부는 올해 9월 평택으로 이동을 마쳤다. 아직은 어수선하고 정돈되지 않은 건물분위기와는 달리 사내 분위기는 조용할 정도로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TGS 본부 장치사업팀 개발파트는 이날도 회의실에 모여 향후 출시될 신제품에 대한 회의와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제품 생산의 시작, 개발파트

어떤 제품이든 개발파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부분에서 개발파트는 다른 부서들과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개발파트를 맡고 있는 김성훈 부장은 “가스 캐비닛(Cabinet), 퓨리파이어(Purifier), 프리커서(Precursor) 공급장치의 생산에서 기존에 공급되는 제품이 아닌 새로운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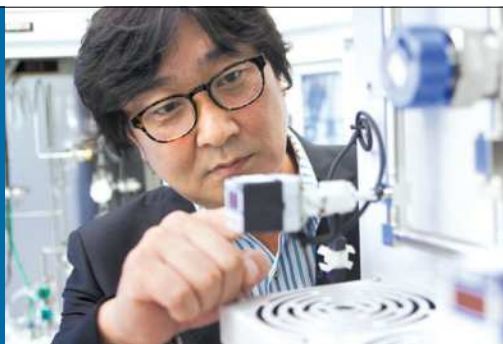


는 것이 개발파트의 주업무”라고 이야기했다. 그 외에도 신제품 개발도 이들의 몫이다.

일반적으로 N2 H2 O2 등의 가스를 초고순도로 만드는 산업용 정제기의 역할이라면 새만금 테마파크나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쪽으로 공급할 수 있

는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도 개발파트에서 맡고 있다고 김 부장은 설명해줬다.

N2, H2, O2, Ar 등의 고순도 가스를 초고순도로 만드는 반도체용 정제기와 함께 수소연료전지 공급용 수소정제기 등 일반 산업분야로 공급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장비의 개발도 개발



파트에서 맡고 있다.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피는 것이다.

또 그는 “현재는 가스 위주로 반도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에는 새로운 물질 등을 스스로 하는 좀 더 진화된 공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때 필요한 프리커서 공급장치를 새롭게 개발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하우, 기술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

김성훈 부장은 “오랜 세월동안 노하우를 축적한 외국회사와 달리 처음부터 국산기술을 연구, 개발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품 노하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20년 중 15년간은 외국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기간이라 할 정도로 오랜 시일이 걸렸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기술 축적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반 기술 구축과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 결과 반도체, FPD 등 산업에서 요구되어지는 대형화 및 고 집적화에 따라 대용량 가스를 안정하게 공급 할 수 있는 트레일러 공급용 BSGS를 개발하고 반도체에서 요구되는 초 고순도(Impurity 0.1ppb 이하) 대용량 퓨리파이어를 개발 하였으며, 새로운 공정에 적용 가능한 액상의 프리커서를 안정되게 공급하는 프리커서 공급장치를 개발했다. 그밖에 일반 산업용 퓨리파이어 개발(H₂, N₂, Ar 가스용)과 새로운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가스



공급시스템 개발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또한 가스별 특성 및 반응성을 분석하여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데 필요한 사양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항상 신선함을 유지하는 개발파트

김성훈 부장은 “개발파트는 젊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덕분에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개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사무실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밖에서 세미나와 견학을 통해 배우는 능동적인 학습 분위기가 더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서 그 스스로도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개발파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일반산업용 제품 개발에 있다. 향후 일반산업에 사용될 신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연구하는 개발파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들의 역량은 한층 더 발전할 것이 분명하다.

글 김도용 · 사진 조인기



Emerging Memory

기술동향

1 서론

지난 40년동안 반도체 memory 및 logic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computers (desktop, notebook), 서버 및 mobile 기기 (PDA, Handset, smart phone, tablet PC 등) 발전을 통하여 여러

동해 주었다. 이중 mobile 기기의 발전은 저전력 AP (Application Processor) 및 비휘발성 memory의 발전과 함께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비휘발성 메모리는 휘발성 메모리와는 달리 전원 이 off된 상태에서 기존에 저장된 정보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data

storage 용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 현재 비 휘발성 메모리의 대표 라고 할 수 있는 Flash Memory 는 가격, 저 소비 전력에서는 유리하지만 DRAM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과 달리 random access 가 되지 않는 동작으로 인한 낮은 속도에 대한

단점도 있다. 한편 반도체 memory 소자에 대해 요구하는 대용량 data 저장 및 속도 증가에 대한 기술 발전은 반도체 memory cell의 고집적화에 의해 발전되어 왔고 이러한 고집적화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down-scaling의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이에 따른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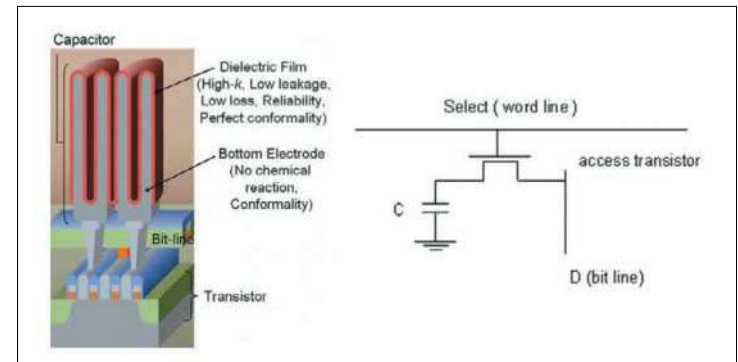


그림 2. DRAM의 cell 단면도 및 회로도

와 비휘발성 memory에 대하여 각각 정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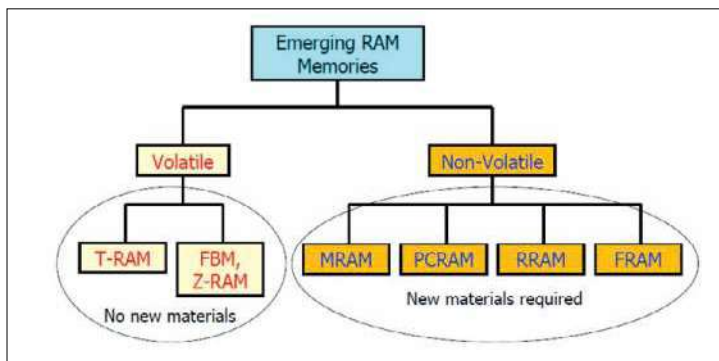


그림 1. 휘발성 및 비휘발성 Emerging Memories

지속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현재 emerging memory에 대한 연구는 휘발성 memory와 비휘발성 memory 분야에 대해 각각 진행되고 있다. 이에 emerging memory에 대한 기술 동향을 휘발성 memory

2 휘발성 Emerging Memory

ZRAM (Zero Capacitor RAM)

일반적인 DRAM의 경우 그림 2에 보듯이 1 Transistor + 1 Capacitor로 구성되어 있다. DRAM의 경우 전원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capacitor에 저장된 정보에 대

한 사항이 누설 전류 인하여 소멸된다. 따라서 capacitor의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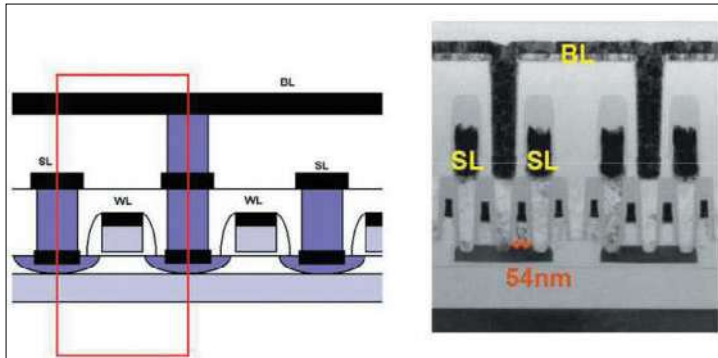


그림 3. ZRAM의 Cell 단면도 및 TEM 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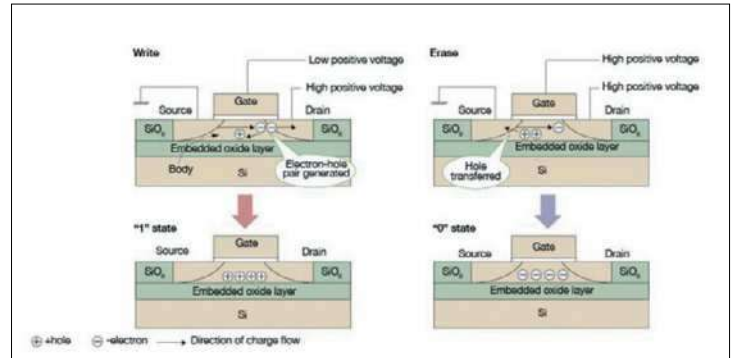


그림 4. ZRAM의 읽기 및 쓰기 동작

격으로 정보에 대한 re-fresh 동작이 필연적이다. 또한 1T 1C 구조의 일반적인 DRAM의 경우 지속적인 down-scaling과 이에 따른 복잡한 cell 구조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한 수율 저하 및 제조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SOI 기반의 capacitor 가 없는 구조인 ZRAM (Zero Capacitor RAM)에 대한 연구는 최근 단순한 memory cell 구조, 작은 면적 및 logic 영역과의 용이한 integration 을 요구하는 embedded 기반의 반도체 소자의 응용 분야에 대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림 3과 그림 4에 ZRAM의 cell 구조와 이에 대한 동작에 대해 각각 나타내었다. ZRAM의 동작 원리는 write state ("1" state) 에서는 drain에 positive bias 를 가하게 되면 electron-hole pair가 drain 근처에서 생성되고 이중 electron은 drain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hole 만 body에 trap되어 남게 된다. 반대로 erase state ("0" state) 는

gate와 drain에 각각 positive bias를 가하게 되면 electron-hole pair중 hole이 source 쪽으로 이동하여 electron이 body에 trap 되어 남게 된다. ZRAM의 경우 SOI 기반에서 작동되는 단점이 현재 memory 소자를 양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cost 와 기술적인 면에서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

기 위해서는 data reading 에 대한 margin 확보 및 threshold voltage 변화에 대한 소자의 민감성에 대한 수율 저하 등 여러 당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RAM (Thyristor RAM)

하지만 embedded 소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와 이에 따른 저전력 operation, small cell size, scalability, logic compatibility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기술적인 장점이 ZRAM 이 우세한 것과 향후 SOI wafer의 가격 저하 대비 DRAM의 down-scaling에 대한 비용 증가가 더 큰 경우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최근 다중 게이트 구조의 transistor (MuGFET, Multiple Gate FET) 구현에 따른 ZRAM의 고집적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그림 5 ZRAM에 대하여Hynix와 Innovative Silicon에서 기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상용하

Thyristor란 off상태로부터 on상태 또는 on상태로부터 off상태로 switching할 수 있는 3개 또는 그 이상의 접합을 갖는 4층이상의 pnpn구조로 된 반도체 소자를 말한다. thyristor는bipolar transistor의 일종으로 애널로그회로, 디지털회로 등에 사용되는 bipolar 디바이스로 on상태와 off상태 두 가지 안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off상태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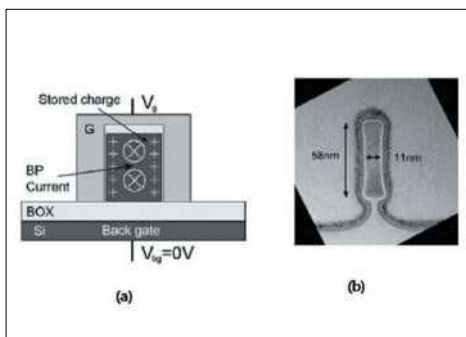


그림 5. (a) MuGFET ZRAM cell 단면도, (B) Fin 형태의 MuGFET ZRAM TEM 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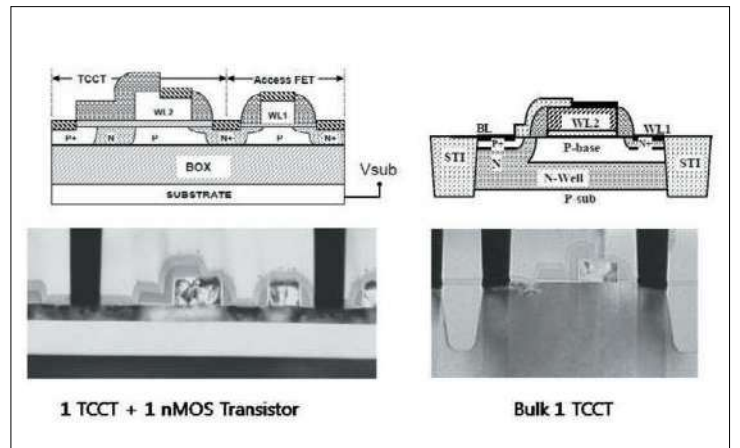


그림 6. TRAM cell 단면도 및 TEM images

on상태 또는 그 반대의 switching이 가능한 세 개 이상의 pn접합을 갖는 소자를 말한다. thyristor는 일반적으로 전력용 transistor에 비해 고내압에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낸다. T-RAM은 thyristor의 bistable 특성을 이용한 memory소자로 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을 대체하는 형태 TCCT (thin capacitively coupled thyristor)와 nMOS transistor로 구성된 SOI 기반의 T-RAM과 DRAM을 대체할 수 있는 1 TCCT 로 구성된 형태 나눌 수 있다. 그림 6 T-RAM의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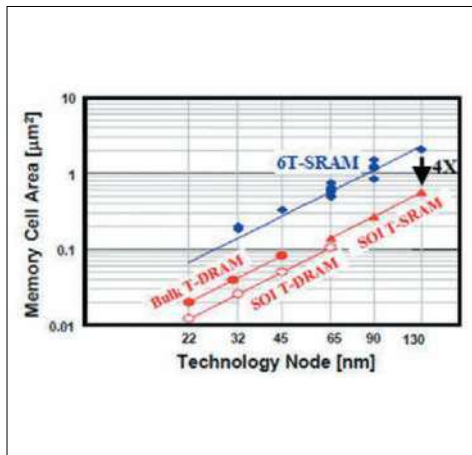


그림 7. TRAM Technology node에 따른 cell 면적 변화

큰 장점은 6T SRAM 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면서 cell 면적은 1/4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세대 CPU 소자의 SRAM 영역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자로 주목

받고 있고 이에 대한 것은 GlobalFoundries의 경우 32nm 이하의 소자에 대해서 T-RAM 적용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평판 구조를 갖는 Thyristor DRAM의 경우 SOI 구조가 아닌 일반적인 Si 기판 위에 추가로 세 step의 ion implant 에 의해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memory cell의 집적도 향상뿐만 아니라 cost 면에서도 기존의 embedded DRAM에 비해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그림 7에 T-RAM에 대하여 technology node에 대한 cell size변화를 나타내었고 또한 bulk T-DRAM의 경우 비교적 단순한 cell 구조로 인한 lithography에 대한 공정 margin이 넓어 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고집적 high speed memory 소자에 대해 T-RAM 적용이 기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3 비휘발성 Emerging Memory

STT MRAM (Spin-Transfer Torque Magnetic RAM)의 경우 자료 처리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소자 특성이 DRAM과 Flash memory의 장점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DRAM과 Flash memory를 대체할 차세대 메모리로 주목 받고 있다. MRAM은 현재에도 사용되는 하드디스크의 data를 기억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스핀 의존 전기 전도에 의해 형성되는 강자성 터널 자기 저항 효과 (Tunnel Magneto Resistance, TMR)를 이용하는 memory 소자이다. TMR 소자는 그림 8에 나타내었듯이 비자성층(AI2O3 또는 MgO)을 강자성체 사이에 끼운 3층 구조로 강자성체는 변이 금속 자성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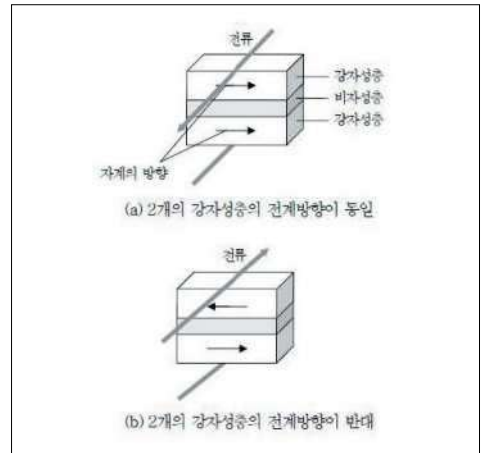


그림 8. MRAM TMR 소자의 기본 원리

소인 (Fe, Co, Ni) 및 합금 (CoFe, NiFe)등이 이용되고 있다. 상하 두 개의 강자성체에 각각 배선을 연결하고 전류 방향이 반대일 경우에는 강자성체의 자화 방향이 평행하게 되고 이때 나타내는 자기 성질을 RP(Paralleled resistance)라 하고 반대 방향일 경우 RAP(Anti-paralleled resistance)라 한다. 저항의 크기는 RAP가 RP보다 큰 특성을 보이고 RP 와 RAP의 차이가 클수록 메모리 소자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MRAM의 경우 memory cell 크기가 20 ~ 30 F2로 DRAM (6 ~ 8 F2) 과 Flash Memory (4F2) 보다 크기 때문에 고집적 소자의 경우 memory chip 크기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STT MRAM (Spin-Transfer Torque MRAM)이고 차세대 비휘발성 memory 소자로 최근 각광 받고 있다. 그림 9 일반적인 MRAM의 경우 수평자화방식에 의한 word line 과 bit line에 흐르는 전류 의해 발생하는 magnetic field를 이용하고 이 경우 MRAM의 소자가 작아질 경우 높은 switching ratio에 따른 높은 전류 요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Spin-Transfer Torque (STT) 방식에 의해 해결되었다. STT MRAM의 경우 하부 강자성체에서 상부 강자성체로 전류 흐름을 경우 하부 강자성체의 자화 방향으로 spin 방향이 정렬 전자의 흐름에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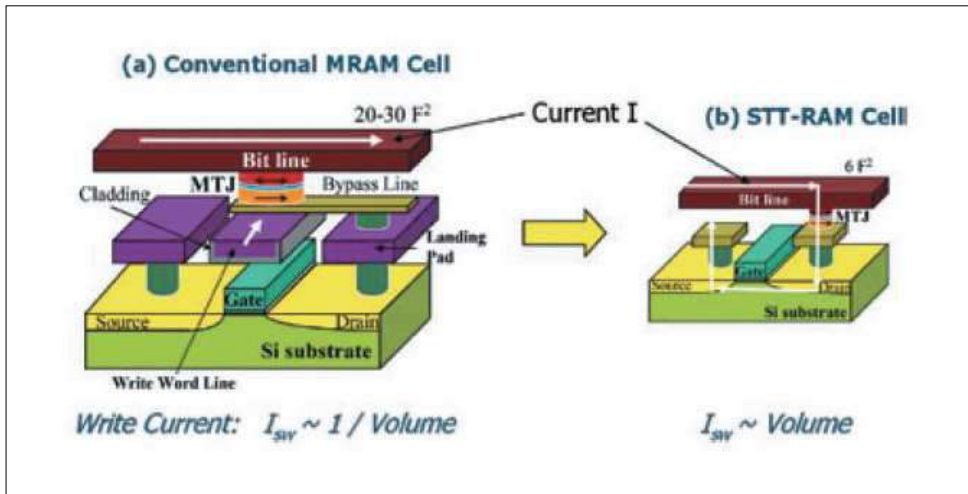


그림 9. MRAM cell 구조비교 (a) 일반적인 MRAM, (b) STT MRAM

해 상부 강자성체의 자화 방향이 정렬되는 힘을 받게 되며, 일정 이상의 전류에서 상부 강자성체의 자화 방향이 하부 강자성체의 자화 방향과 일치하게 된다. 반대로 상부 강자성체에서 하부 강자성체로 전류 흐르게 되면 하부 강자성체와 상부 강자성체 사이에 spin 축척이 발생하게 되어 상부 강자성체의 자화 방향이 하부 강자성체의 자화 방향과 반대로 배열되는 특성이 보인다. 따라서 STT MRAM의 경우 memory 소자의 집적도가 높아 질

수록 작은 구동 전류 요구하게 되고 따라서 고집적 저 전류 memory 소자 특성을 얻게 된다. (2008 IRTS, 그림 10). 하지만 STT MRAM의 고집적화를 위해서는 열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자성체의 높은 자기이방성 특성 향상에 대한 부분은 아직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PRAM (or PCRAM, Phase Change RAM)

PRAM은 열에 의한 물질의 가역적 상변이, 즉 결정질(crystalline)과 비결정질(amorphous) 상태가 가역적으로 변이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memory 소자이다. 이 경우 memory 소자 역할을 하는 칼코겐화합물(chalcogenide)인 GST(Ge₂SB₂Te₆) 합금에 전류 가하게 되면 발생하는 열에 의해 결정질과 비결정질 간의 가역적인 상변화가 일어나고 이때에 나타나는 결정질과 비결정질 간의 저항차이에 의해 정보를 저장하는, 즉 결정질 상태에서는 저항이 낮고 비결정질 상태에서는 저항이 높기 때문에 이를 각각 “1” 과 “0”의 논리를 대응하게 하여 data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구동된다. PRAM의 기본적인 cell 구조는 DRAM 과 유사하고 DRAM의 전하를 저장하는 capacitor 대신 칼코겐화합물인 GST를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 11 초기 PRAM의 구조는 planar type으로 PVD(Physical Vapor Deposition) 방식으로 GST물질을 증착하였으나 고집적도에 대한 memory 소자의 크기를 줄이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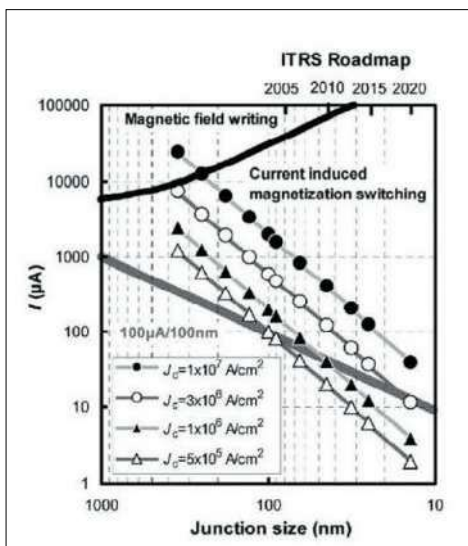


그림 10. 수평자화방식 (Magnetic field writing)과 수직자화방식 (Current induced magnetization switching)과의 구동 전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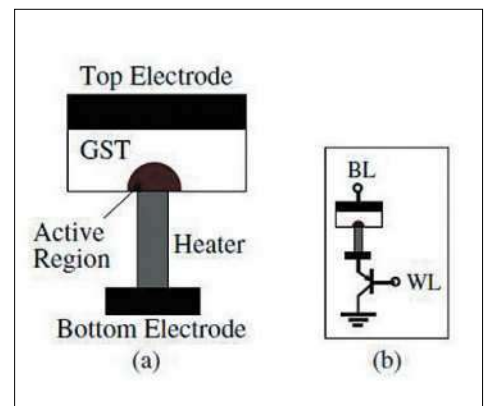


그림 11. (a) PRAM Cell 구조 (b) PRAM Cell 회로도

해 도입된 confined구조에 대한 대응으로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및 ALD(Atomic Layer Deposition) 방식의 GST 물질의 증착 방법이 도입되었고 20nm 이하의 GST소자의 크기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2 PRAM이 갖고 있는 DRAM 소자 구조와의 유사성 또한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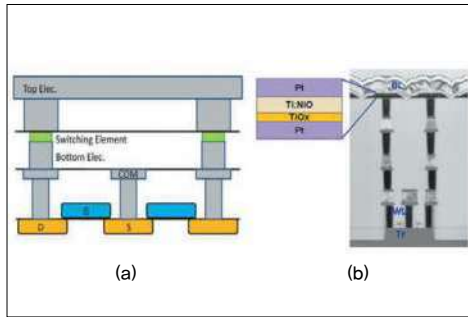


그림 13. (a) ReRAM Cell 구조, (b) ReRAM Cell TEM 사진

DRAM에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게 되어 PRAM 제조로 전환될 경우 제조 장비에 대한 cost 절감을 얻을 수 있고 data의 저장 방식이 물질의 상변화로 저장되기 때문에 외부의 전자기파 등의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휘발성 특성으로 전력 소비가 적게 드는 장점도 갖는다. 하지만 reset 전류를 감소할 수 있는 방법 및 multi-bit cell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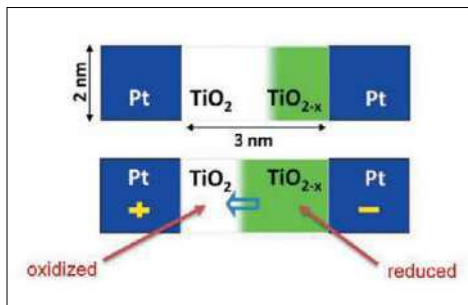


그림 14. Oxidation/reduction에 따른 TiO₂막의 저항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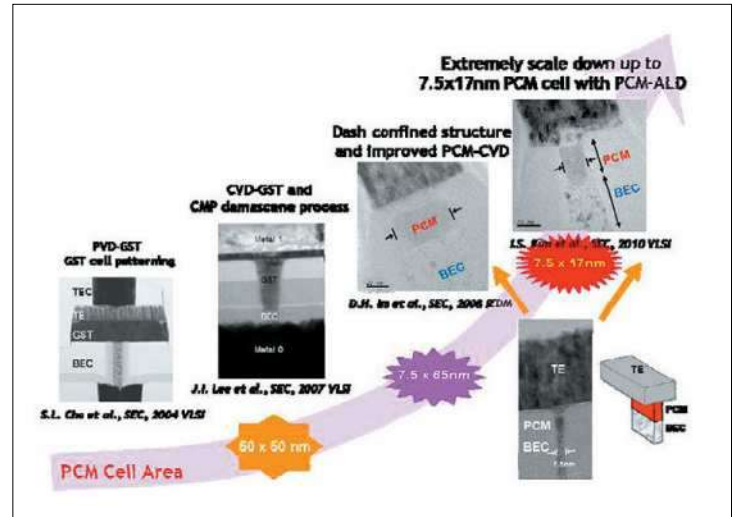


그림 12. PVD 방식의 planar 형태의 GST cell 구조로부터 ALD 방식의 dash confined GST cell 구조로의 진화

구현 등 PRAM의 상용화에 대한 당면 과제 또한 갖고 있다.

ReRAM (Resistive RAM)

ReRAM은 1개의 transistor와 MIM 형태 memory 소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3 ReRAM의

경우 특정한 전기적 신호를 가하면 전류 잘 흐르지 않는 높은 저항의 상태 off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전류 잘 흐르는 낮은 저항 상태 on 상태로 변하는 memory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on/off에 대한 switching mechanism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여러 연구 단체에서 저항 변화의 원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Fuse/Anti fuse memory switching	Electronic effect based switching	Metal ion motion based switching	Oxygen ion motion based switch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polar switching with diode • Excellent reten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cellent uniformity • Multilev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st P/E speed • Low power • Multilev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st P/E speed • Excellent endurance • Excellent statistical distribution • Low power • Multilev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ed electro forming • Poor uniform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or retention • Poor scal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ed low temperature process • Poor retention/poor uniform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or retention

표 1. Switching 형태에 따른 ReRAM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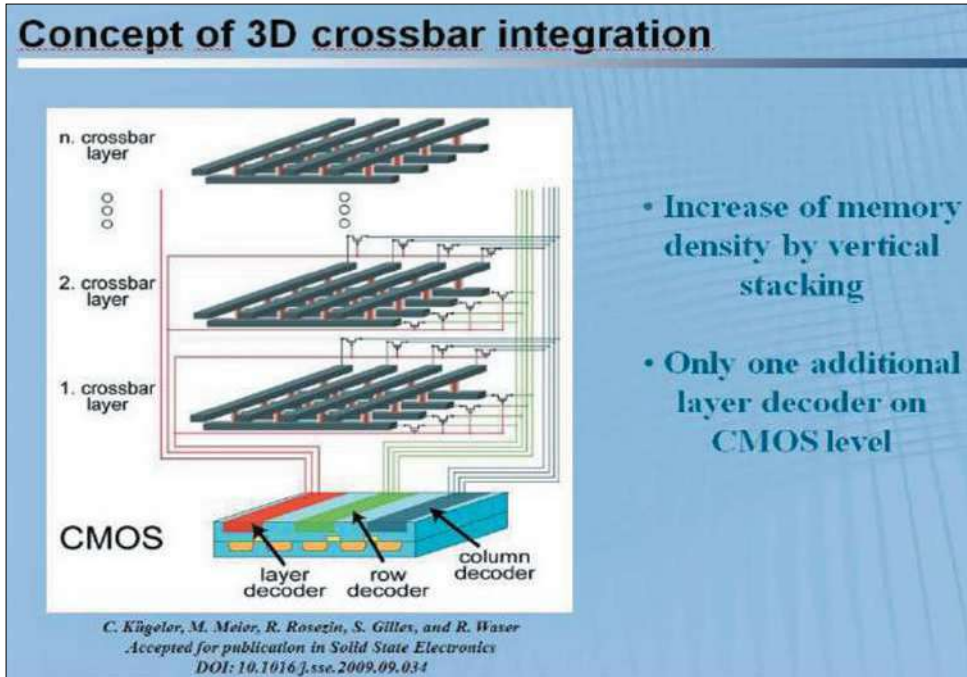


그림 15. ReRAM의 3D integration 개념

ReRAM 특성을 보이는 재료로는 이원계 산화물 (Nb₂O₅, TiO₂, NiO, Al₂O₃), metal doped PCMO (Pr_{1-x}CaxMnO₃), PMC (programmable metallization cell, AgGeSe), metal doped perovskite (SrTiO₃, SrZrO₃ 등에 Cr 혹은 Nb 도핑) 등이 알려져 있다. 표 1에 switching type에 따른 ReRAM에 대해 나타내었다. TiO₂ 등의 산화물에 대하여 전기적 신호에 대한 저항 변화를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TiO₂ 층은 고저항 영역인 TiO₂와 전도특성을 갖는 TiO_{2-x}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이때 TiO₂와 접촉된 metal 전극에 positive bias를 가하게 되면 oxygen vacancies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상대적으로 TiO₂ 두께가 얇아지는 tunneling 영역에 도달하게 되고 전류 흐르게 되는 on 상태 switching 하게 된다. ReRAM은 빠른 쓰기 속도와 2~5 V의 낮은 전압에서 가동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볼 때 향후 Flash memory를 대체하는 비휘발성 memory 소자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Flash memory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표 2에 나타낸

여러 소자 특성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ReRAM의 경우 단순한 구조와 기존의 CMOS와의 연결이 용이한 장점을 이용한 3D 구조의 crossbar 형태 구조로 진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ReRAM의 고집적도는 memory 소자의 다층 수직 구조의 연결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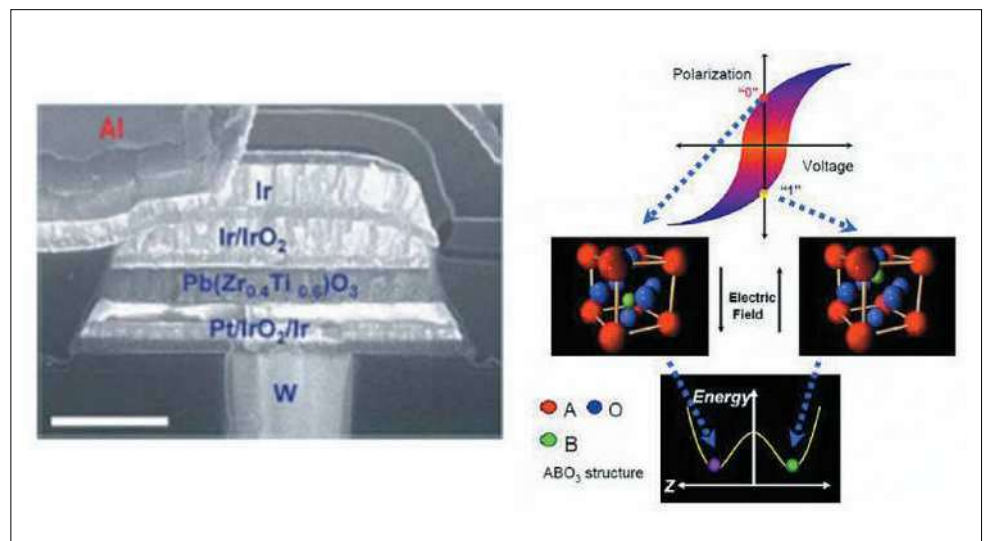


그림 16. ReRAM capacitor 단면도 및 Ferroelectric polarization

FeRAM (Ferroelectric RAM)

FeRAM(Ferroelectric RAM)은 DRAM과 같은 구조를 갖는 메모리 아키텍처에서, DRAM cell에 있어서 전하를 보유하고 있는 유전체 capacitor를 강유전체로 하는 것으로 비휘발성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강유전체 재료로서는 PZT(lead zirconate titanate)등의 페로브스카이트 (Perovskite) 화합물이나, SBT(strontium barium titanate) 등의 층상 페로브스카이트 화합물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16에 PZT capacitor의 구조와 ferroelectric가 갖고 있는 특성을 memory 소자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나타내었다. FeRAM의 cell 구조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2 transistor 2 capacitor 구조 그림 17 (a)의 경우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쪽의 capacitor에 “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기억시켰을 경우, 이미 다른 capacitor에는 반대의 “0”을 기억시켜, 읽어 낼 경우에는 BL과 BL의 2개의 전압차이를 sense amplifier에서 판단하고, 예를 들면 전압차이가 플러스이면 “1” 마이너스이면 “0”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같다. 1T 1C 셀은 집적도를 올리기 위해서 각 1개씩의 transistor와 capacitor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읽어 낼 때에는 BL에 “1”과 “0”의 중간 수준에 맞는 레퍼런스 전압을 주고, 그 레퍼런스 전압을 threshold 값으로 하여 “1”과 “0”을 판단한다. 그림 17 (b) 1Tr 셀은 1T 1C 셀의 capacitor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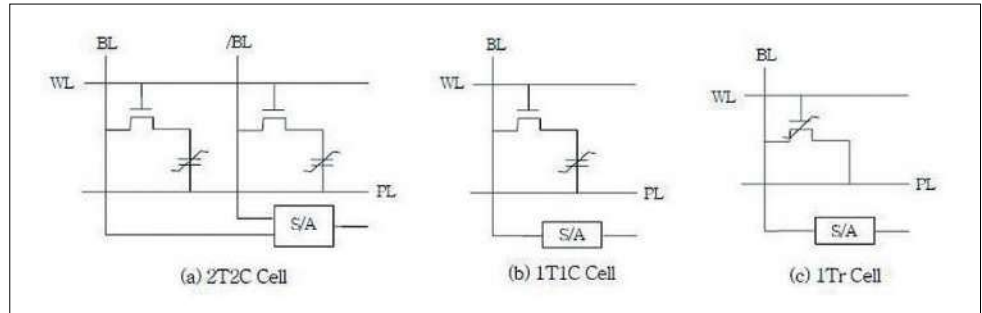


그림 17. FeRAM Cell 회로도

Requirements of RRAM

... to compete with Flash

Endurance:	> 10^7 cycles (Flash $10^3 \dots 10^7$)
Resistance ratio:	$R_{OFF} / R_{ON} > 10$
READ current:	I_{ON} approx. 1 μA (due to periphery circuit) approx. $10^4 A/cm^2$ (for 100nm x 100nm cells)
Scalability:	$F < 22$ nm and/or 3-D stacking
Write voltage:	approx. 1 ... 5 V (Flash > 5 V)
Read voltage:	0.1 ... 0.5 V
Write speed:	< 100 ns (Flash > 10 μs)
Retention:	> 10 yrs

표 2. Flash memory를 대체하기 위한 ReRAM 특성 요구 사항

제거하고, 더욱 집적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FET의 게이트 절연체막을 강유전체 막으로 대체한 것으로, FET 자체에 capacitor의 역할을 가지게 한다. 그림 17 (c) 기존의 FeRAM은 상하부 전극 사이에 PZT 박막이 들어가는 구조로 일정량의 분극전하량을 얻기 위해서는 수평 방향의 capacitor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cell 면적이 30F2로 큰 것이 단점이었다. 최근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직형태의 PZT capacitor 구조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고 이 경우 cell 면적은 4

~ 8F2로 크게 감소 할 수 있다. 그림 18 고집적된 FeRAM을 얻기 위해서는 읽는 시간의 속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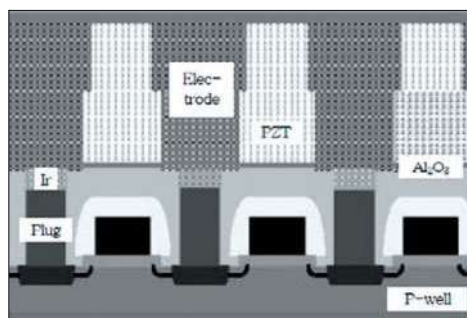


그림 18. 수직 구조 capacitor 형태의 FeRAM cell 단면도

및 상대적으로 큰 cell 면적 등이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4

요약

최근 mobile 기기의 발전과 함께 반도체 소자의 다변화, 저전력 및 대용량 data 저장용 memory 소자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된 memory 소자에 대하여 대용량 data 저장에 따른 down-scaling에 대한 문제, data읽기 및 쓰기 속도 증가 개선, logic 회로와의 연결 및 호환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특성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휘발성 memory의 경우 cell 회로 및 구조 변화에 대해 memory 소자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주로 소자업체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비휘발성 memory의 경우에는 memory 소자에 대한 물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휘발성 memory의 경우 소자 특성이 data를 저장하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볼 때 memory 소자 물질에 대한 연구 개발이 향후 비휘발성 memory에 대한 상용화의 시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 초우량 기업을 향해가는 원익인의 DREAM . PASSION . CHALLENGE

Passion

SECTION 02



46

Zoom in

(주)원익IPS 야구동호회 IIPS 야구단
야구로 하나 되는 사람들 오늘도 승리를 향해 뛰자

48

Scene of Welfare Service

(주)원익퀵츠 원익나눔회 함께하는 즐거운 물놀이 봉사
조금만 손내밀면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50

Talk Box

원익 30주년 기념, 원익에게 보내는 글
원익인 가슴에 새겨진 원익 30주년의 의미

Zoom in

(주)원익IPS 야구동호회
ILIPS 야구단



야구로 하나 되는 사람들

오늘도 승리를 향해 뛰자

올해로 프로야구는 출범 11년째를 맞이했다. 그간 많은 팬들은 물론, 야구를 즐기는 문화도 많이 정착됐다. 동호회를 비롯해 사회인 야구단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주)원익IPS 야구 동호회 '아일립스(ILIPS) 야구단'은 야구에 대한 열정으로 뚝뚝 뭉친 가슴 뜨거운 동호회다. 야구가 좋아서, 함께 어울리는 게 좋아서 모인다는 그들을 소개한다.



10월 15일, 이날은 아일립스의 시즌 13번째 시합이 있는 날. 비가 예고된 가운데 병점 안용중학교의 하늘에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경기한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1회 말 아일립스의 공격이 시작될 무렵,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하늘에서 기어코 비가 쏟아져 내렸다. 결국 경기는 우천으로 취소됐다. 득점권에 주자가 나간 상황에서 아일립스 회원들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했



다. 총무를 맡고 있는 홍석순 과장은 “시간만 더 있었으면 역전할 수 있었는데…….”라며 아쉬움을 달랬다.

아일립스 야구단이 창단된 것은 2009년경. 현재 아일립스 감독인 이기현 과장을 중심으로 4~5명 정도의 사원이 회사 근처 진위천 축구장에서 뭉치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 야구공과 글러브, 배트만으로도 이들은 야구에 흠뻑 빠져들었다. 또한 진위천 축구장은 야구를 즐기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일립스 야구단은 창단됐다. 아일립스(ILIPS, I Love IPS)의 약자라는 이름도 그때 만들었다.

포수를 맡았던 김봉래 부장은 합병 전 아이피에스에서 평택 본사와 포승 사업장 간의 거리가 이동에만 1시간이 걸려서, 평일 모임에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주말에 모임이 있는 야구 동호회 아일립스에 가입하게 됐다. 좋아하는 운동을 즐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다. “회사에 동호회가 여럿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주말밖에 시간이 나지 않았거든요. 마땅한 모임이 없었는데 마침 아일립스가 생긴거죠. 덕분에 좋아하는 운동도 꾸준히 즐길 수 있게 돼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일립스의 창단과 활동은 일사천리로 시작됐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았다. 시합을 위해 당



장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비마련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통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신동의 부장은 설명했다. 경기를 위해 회원들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급한 보호장비류를 갖출 수 있었다. 유니폼까지 맞출 여유는 없었던 탓에 동호회 창단 후 한동안은 유니폼 없이 경기를 해야 했다. 그래도 야구를 한다는 것만으로 아일립스 회원들은 트레이닝차림새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회원들은 입을 모았다.

홍석순 과장은 “올해에는 ‘1승만 하자’는 생각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시즌 초반에 목표를 달성

했다.”고 전하면서 “7~8월에 연승행진을 하면서 분위기가 최고”라고 팀 분위기를 소개했다. 아일립스 회원들은 ‘시즌 5승 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즐거운 상상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석순 과장은 동호회 활동과 관련해 “평일에 회식을 하면서 개인 간에는 많이 친해졌지만 아직 응원하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그라운드에서 ‘화이팅’을 외치는 것도 어색할 때가 많다. 가족 같은 팀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히고 “내년에는 문학 바비큐 존에 가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또 그는 “회사 합병으로 늘어난 인원을 대거 동호회로 흡수해 내년에는 2개 리그를 뛰는 것이 감독 이기현 과장님의 목표”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아일립스는 동호회 초창기 때의 어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방법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신입회원들을 멋지게 맞이하고 싶기 때문이다.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든 아일립스 야구단. 아직은 경기 운영이 미숙하지만 열정적인 자세로 매 경기에서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일립스 회원들은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해 시즌 목표인 5승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앞으로 5계임을 남겨둔 상황에서 다음 경기는 10월 29일이다. 아일립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들이 만들어갈 야구 스토리를 기대해본다.

글 김도웅 · 사진 이상엽



Scene of Welfare Service

(주)원익쿼츠 원익나눔회
함께하는 즐거운 물놀이 봉사



조금만 손내밀면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쏟아졌던 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물놀이'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즐길 수 있는 물놀이지만 꿈만 꾸는 사람도 있다. 바로 장애우들이다. (주)원익쿼츠 원익나눔회는 구미시 장애인복지관 장애우들과 대구 스파밸리를 찾아 '원익쿼츠와 함께하는 즐거운 물놀이' 봉사를 가졌다.



지난 8월 21일, 11시가 조금 넘자 원익나눔회와 구미시 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들이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는 이들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다. 오늘 물놀이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장애아동은 총 10명. 그러나 10명 모두 참석하지는 못했다. 밤사이 상태가 안 좋아져 오지 못한 것이다. 이형길 봉사단장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들이 물놀이가 처음이라 기분이 들떠있네요, 오늘 계획대로 오지 못하고 불참하게 된 아이가 몇 명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이재용 어린이와 함께한 변현섭 사원은 “도배봉사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고 자신의 봉사이력을 소개했다. 그는 “저번 봉사 때는 인원이 많아서 쉬운 편이었는데, 오늘은 좀 힘들 것 같다. 오늘



봉사는 보람 있게 잘 마치고 싶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함께한 전호성 사원도 “아이들의 표정이 밝다.”면서 “1년 정도 됐는데 몇 번 나오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물놀이는 점심을 먹고 시작됐다. 2~3인 1조로 나뉜 일행은 스파밸리 파도 풀을 비롯하여 튜브타기와 물 미끄럼틀을 타는 등 아이, 어른 가리지 않고 모두 물놀이에 흠뻑 빠져들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다.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어두운 얼굴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봉사단원은 그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함께 즐기는 분위기였다.

입사 6개월 차인 강득심 사원은 대학시절부터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했다. 주로 레크리에이션이나 학습봉사를 해온 강 사원은 “처음 접해보는 물놀이 봉사라 아직은 뒤편부터 해야 할지도 몰라 어리둥절한 상태지만, 아이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즐겁게 놀다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익나눔회원들은 물놀이 중간에 따뜻한 물에 들어가는 등 아이들이 자칫 저체온증이 오지 않을까 염려해 온탕을 오가는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뇌병변 1급 장애아동의 경우 증상의 경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행동을 옆에서 보조해주어야 한다.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아동 1명당 배정된 봉사인원 수는 2배에 가깝다. 현실적으로 장애아동이 물놀이를 즐기는 것이 힘든 이유다. 제대 후부터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엄성진 총무는 6년이 넘는 봉사활동 경력으로 이날 전반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했다. 군대시절 대민지원 활동을 나오게 된 것이 계기가 돼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그는 “시간 닿는 데까지 계속 참여하고 싶다. 몸은 좀 힘들지만 마음이 즐겁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이날 봉사에 함께한 구미시 장애인복지관 소속 한선연 씨는 “매년 열리는 1일 장터에서 도움을 받은 것을 계기로 그림공모전을 비롯한 여러 봉

사에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다.”면서 “(주)원익퀴즈의 이번 물놀이 봉사 제안 덕에 장애아동들이 경험하기 힘든 물놀이를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날 봉사는 집합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즐거운 분위기가 끊이지 않았다. 일정이 끝날 때까지도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봉사단원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우리에게 당연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꿈처럼 여기는 아이들이 많다.

이날 봉사는 구미시 장애인복지관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했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된 아이들이 더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조금만 손을 내밀면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기에 (주)원익퀴즈 원익나눔회는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의 활동을 앞으로도 기대해본다.

Talk Box

원익 30주년 기념,
원익에게 보내는 글



원익인 가슴에 새겨진 원익 30주년의 의미

토크박스 답변에 대한 질문내용을 3줄정도 부탁드립니다.토크박스 답변에 대한 질문내용을 3줄정도 부탁드립니다.토

크박스 답변에 대한 질문내용을 3줄정도 부탁드립니다.토크박스 답변에 대한 질문내용을 3줄정도 부탁드립니다.토크

박스 답변에 대한 질문내용을 3줄정도 부탁드립니다.

원익
메디칼3팀
서우현 사원



올해는 1981년 원익 통상으로 시작하여 설립된 (주) 원익이 30주년 되는 뜻 깊은 해인 동시에 제가 태어난 해이기도 합니다. 한 회사가 KOSDAQ 상장하여 지금의 위치까지 성장해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견디고 이겨 냈을 생각을 하면 회사의 역사와 제 일생이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이번 10월 13일 화창한 날씨와 함께 원익 3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신규 입사자 과정 때 동거동락 했던 계열사 동기들을 볼 수 있었고 줄다리기, 씨름, 축구, 피구, 승부차기, 계주 등 다양한 운동과 Face painting 및 Photo zone 등의 즐길 수 있는 거리와 먹음직스러운 음식도 행사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오후시간의 하이라이트인 각 계열사의 장기자랑은 수개월의 연습과 노력의 시간을 느낄 수 있었고 잘하는 것보다 도전하는 것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불꽃놀이도 최근 업무 일정에 지친 삶에 불빛이 되듯 뜻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했던 원익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각나고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된 이름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자랑스러워 졌습니다. 내일을 사랑하면 저절로 그 방법과 길이 생긴다는 말처럼 함께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처럼 성장해 가는 원익을 오랫동안 보고 싶습니다. 원익의 미래가 곧 저의 미래이고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의 바램이라는 걸 원익 가족 1300여명의 직원들이 앞으로도 협력하여 본인에 업무에 꾸준히 충실하여 함께 원익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익 30주년 축하 합니다.

(주)원익퀵츠
총무팀
강득심 사원



원익 30주년을 기념한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시행된 체육대회 - 장기자랑을 준비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던 저에게 그날은 기분 좋은 웃음을 짓게 하는 추억거리로 남았습니다. 회사의 아낌없는 지원, 부서 선배님들의 지원, 함께 준비한 여직원들

과의 단합, 회사 모든 직원분들의 열렬한 응원, 우승을 향한 열정과 하나 되는 마음. 가슴을 찌릿거리는 그날의 기억은 제가 처음 이 회사를 방문했던 그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면접일자를 통보받고 면접을 보러 처음 방문한 “원익퀵츠” - 점견실에서 면접을 기다리며 무심코 탁자위에 올려진 ‘원익인’ 사보에 손이 갔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면 기회란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는 말처럼 기회는 확실한 성공의 순간을 기다려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열정을 가지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기회를 움켜잡을 수 있다. 도전해보지도 않고 선불리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는 것은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 고민은 도전을 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는 법이다.』

사보를 펼치고 제일 먼저 들어온 글귀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서있는 저에게 ‘그래, 두려워할 거 없어. 안될까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 당당하게 도전해 보는 거야!’ 라고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의 우리 원익은 도전을 앞둔 그 시기의 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원익은 - 잠시의 흥분과 감격은 잠시 뒤로 하고 꾸준한 성장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 입니다. 세계적인 기

업을 향한 원익의 노력은 태양을 도는 행성과 같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CEO뿐 아니라 회사에 몸담고 있는 우리 개인의 작은 행동 및 생각의 변화가 거대한 조직을 바꾸는 열쇠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도해 보지 않고서는, 도전해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직장에서의 솟아나는 사랑, 관심, 지원, 협력, 격려, 칭찬, 고성과 시너지 효과 등의 결실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원익을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의 기회가 살아 숨 쉬는 기업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원들도 더욱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열정을 보여 줄 것이라 믿습니다. '너와 내가 손잡으면 나아가지 못할 것은 없다.' 지나온 30주년만큼 40주년, 50주년, 60주년... 흐르는 세월만큼 더욱 기대되는 기업이 되도록 너와 내가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위닉스
해외영업부
김보애



원익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닉스 직원 김보애입니다. 원익이 창립한지는 벌써 3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무역회사 시작하여 지금은 중견기업으로 성장, 창립 30주년을 맞이한다니...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30년이면 한 세대가 바뀐다는데 한 세대를 넘는 동안 꾸준히 성장해온 원익의 일원이라는 것에 새삼 큰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사람에게 서른이라는 나이는 지난 날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40주년, 50주년 나아가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원익이 될 수 있도록 견실한 미래설계를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과

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비록 경제 불황이 연속되고 있지만 원익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원익 30주년을 축하하며 미래의 더 나은 원익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원익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원종합개발(주)
재경팀
최윤서 사원



2008년도에 안성 모델하우스 현장에 파견을 나간 기억이 납니다. 제 업무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고객님들이 계시는데 신원종합개발(주)보다 원익을 아시고 계약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은 대개가 바둑광들로 원익배 바둑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회장님께서도 바둑을 매우 좋아하신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고객분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신입사원이 저로서는 원익이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그런 고객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자부심이 생기면서 원익 로고만 봐도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뽕속 깊이 원익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원익은 30살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올해로 30살이 되었습니다. 20대와는 또 다르게 무게감도 생기고 좀 더 신중해지면서 더 먼 미래를 내다보게 되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원익도 이번 30번째 생일을 보내면서 좀 더 커지고 좀 더 내실을 다지며 40살이 되어 뒤돌아 보았을 때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앞으로의 10년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40번째 생일을 원익과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원익 그리고 모든 원익 가족 여러분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더 큰 원익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원익아이피에스
법무특혜
윤여진 사원



매서운 바람에 옷깃을 여며야 하는 쌀쌀한 계절이 돌아 왔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기 위해 처음 회사에 방문 하였던 날에도 옷깃을 단단히 여며야 할 만큼 추웠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날씨 탓도 있고 첫 면접이라 긴장한 탓도 있어 그 땐 정신 없이 면접을 보았고, 며칠 뒤 합격 문자를 받고 정말 떨듯이 기뻐하고 설레던 순간이 벌써 6개월 전이라니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입사 후에 정신 없이 시간을 보냈던 것만 같습니다. 입사 전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원익 그리고 원익 아이피에스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던 저였지만, 이제 어딜 가든 우리 회사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어딘가에서 우연히 우리 회사의 이름이나 로고가 보이면 저도 모르게 으쓱 해지곤 합니다. 저에게 첫 직장이기엔 회사에 오하려 누가 되진 않을까, 집이 되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던 저였지만 이제 앞으로 어떤 곳에서 내가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며 열심히 고민하고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원익 가족이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에 이만큼 적응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이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 연수 기간 동안엔 기본적인 회사생활 및 사회생활에서의 에티켓 등을 배울 수 있어 학교생활과는 또 다른 회사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정립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간의 OJT를 통하여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실무를 알 수 있었고, 여러 장비들을 보며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차후에 실무에 들어와서 이 기간 동안에 보고 듣고 배운 많은 부분들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일정이 바쁜 데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들을 위하여 3주라는 긴 시간 동안

Talk Box

원익 30주년 기념,
원익에게 보내는 글

교육을 해주어 회사에 좀 더 빠른 적응을 할 수 있게 새심 하게 배려해주는 회사에 대해서 많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3개월간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팀에서의 실무 및 사내 생활을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멘토님과 팀 분들과서 저의 멘토링을 위하여 바쁜 업무 시간 속에 시간을 내주시어 업무를 가르쳐 주시고, 고충에 대한 얘기도 들어 주시며 회사 생활에 빨리 적응 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가끔 제 주위 분들에게 회사얘기를 하면 저희 회사나 원익에 대해서 아시고 좋은 회사라고 얘길 들었다며, 부럽다고 말씀하시는 얘길 들으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으쓱 해서 저희 회사 신 사옥에 대한 자랑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회사의 좋은 환경과 복지에 대한 자랑을 하곤 합니다. 원익의 30주년을 한 명의 직원으로서 같이 축하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사람이 3대가 되면 성숙해지고 미래를 위하여 확실한 길을 잡아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시기 인 것처럼, 지금보다 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로 인정받고 성장하는 원익이 될 것 입니다. 더불어 원익 아이피에스 및 계열사 모두 같이 성장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해나가, 한국을 대표 할 수 있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익 40주년, 50주년에도 자랑스러운 원익인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기원하며 진심으로 원익 30주년을 축하 합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품질팀
이기원 대리



대중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연예인들의 경우, 20년 이상의 경력만으로도 쉽사리 선생님이 라는 칭호가 붙더군요. 그런데 우리 원익이 창립 30년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선생님 뿐만 아니라, 달인 칭호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 원익이라는 이름을 듣게 된 것은, 바둑을 좋아하는 아버지로부터였습니다. 원익배 십단전이라는 바둑대회가 있고, 권위 있는 대회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익이라는 이름을 접한 기억은, 서울남부터미널 근처에서였습니다. 원익 사무실이 있더군요. 지난 2006년, 제가 속해있던 구 아토티수가는 원익 산하의 원익머트리얼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벌써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현재는 원익머트리얼즈 소속으로 원익의 30년에 작게나마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원익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에 소속감을 가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원익머트리얼즈 직원들 모두가 가지는 생각입니다. 계열사의 일개 직원으로, 원익 전체를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지만, 분기별로 발간되는 사보를 통해 원익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원익 30주년 한마음 대축제를 통해 계열사간의 소식과 만남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고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40주년 혹은 60주년 행사까지 참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 30년간 모진 풍파를 겪었음에도, 곳곳이 살아남아서 지금의 원익 30주년 맞이함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원익이라는 달인의 계속되는 질주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서병희 팀장



제가 원익에 입사한 게, 2009년 11월이니, 원익에 입사한 지도 만으로 2년이 다 되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항상 재직 기간을 계산하면서 ‘아직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보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정이 많이 쌓였나 보네요. 원익에서의 지난 2년이란 시간은 많은 즐거움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뿌듯함 중의 하나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 원익투자파트너스는 업의 특성상 많은 외부 업체들과 미팅을 합니다. 이럴 때, 반도체 관련 업체들과의 미팅에서 원익이라는 브랜드는 항상 분위기를 좋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개별 기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거나 레퍼런스를 체크할 때에도 원익의 네트워크는 매우 좋은 조연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시너지가 원익이 30년을 이어온 근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또한, 저희 원익투자파트너스에서 진행해 온 ‘독서토론회’와 ‘문화행사’는 조직원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애사심을 키우는 좋은 행사였습니다. 하나의 책을 정해 읽고 그 내용에 대해 모든 참석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던 ‘독서토론회’는 열린 소통이 무엇인지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독서토론회’를 통해 조직원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접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술과 노래방으로 접철되었던 회식을 대신해, 뮤지컬이나 미술관 관람 등을 진행했던 ‘문화행사’를 통해, 수준 높은 볼거리와 평소 약간의 부담 또는 어려움으로 인식되었던 문화 생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건전한 행사 속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꼈고, 그런 따뜻함을 통해 회사에 더 큰 애정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추억과 든든한 지원이 되었던 원익. 앞으로도 원익이 더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세계 초우량 기업을 향해가는 원익인의 DREAM · PASSION · CHALLENGE

SECTION 03 Challenge



54 Wonik's Dream Team
(주)원익워츠 제조1팀 최연대 부장과 팀원들
장인정신으로 제품 생산에 혼신의힘을 기울인다.



56 Never ending challenge
스티브 잡스
실패는 곧 승리의 역사

Wonik's Dream Team

(주)원익쿼츠 제조1팀
최연대 부장과 팀원들



장인정신으로 제품 생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주)원익쿼츠 제조1팀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핵심 쿼츠웨어 제품을 만들고 있다. 언제나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제조1팀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제품을 생산하면서 회사의 성장 동력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뜨거운 열기가 작업장을 가득 채우고 있고, 한 쪽에는 가공을 앞둔 재료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하지만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 (주)원익쿼츠 제조1팀의 작

업장 분위기다. 제조1팀은 Division-CVD 제품을 생산하는 선반,벤치,기계가공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강한 자긍심의 제조1팀

(주)원익쿼츠 제조1팀은 자신들이 회사의 주축이라는 자긍심이 강하다. 83년 창립이후 DIFF/CVD 공정에 사용되는 4~6인치 튜브, 보트 등을 생산하기 시작해 이후 12인치 대형제품까지 생산했고 최근에는 에치 파트(Etch Part)에서 OEM 방식의 대량생산 체계도 갖추었다. 보기에든 빠른 성장세를 가늠할 수 있다.

제조1팀을 맡은 최연대 팀장은 "(주)원익쿼츠의 시작부터 함께했던 핵심부서"라고 팀을 소개했다. 최 팀장은 "원익쿼츠 매출은 작년 500억대였는데, 지금은 700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제조1팀도 여기에 일조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제조1팀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전체 생산량의 65%를 담당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고 한다. 괜히 생기는 자신감이 아니다.

선반파트는 제조1팀에서 가장많은 36명 배정돼 있다. 중·대형 튜브와 노즐류 제품을 주로 생산한다.





선반파트는 생산되는 제품은 전체 생산량의 60%에 근접한다. 파트장을 맡고 있는 박영식 기장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담당하는 제조1팀의 파트로서 긍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 현재 (주)원익 퀴츠가 현재 세계 2위를 하고 있지만 조만간 1위 탈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벤치파트를 담당하는 장용택 기장은 “라드, 플레이트, 디스크 등을 가공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파트”라고 소개한 후 “주로 앉아서 조용히 작업해서 벤치라고 이름 붙인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22명의 인원이 근무 연수별로 20년 넘는 고경력자부터 1년차 미만의 신입까지 두루 분포해 있는데, 경쟁력은 국내 퀴츠사업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기계가공 파트는 최첨단 기계설비를 이용한 레이저 작업이나 수작업을 병행하여 벤치나 선반파트로 연계부품을 공급한다. 기계가공 파트장 홍성학 기장은 “벤치파트에 제품을 공급하는 등 다른 파트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기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두 파트(선반, 벤치)와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투철한 장인정신과 사명감으로 생산

비록 파트별로 조금씩 다른 제품을 생산하지만 제조1팀은 서로 협력하여 생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투자한 결과 최근에는 현재 여러 공정을 처리할 수 있는 1인 다기능 기술자까지 수가 전체 팀원의 75%수준까지 이르렀다. 사명감과 열정을 가진 제조1팀이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높은 생산 기술력은 그만큼 성취감도 높이고 있다. 홍성학 기장은 “2사 분기 때 제품당 1억이 넘는 대형 LED 제품을 생산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혼을 담아 수주를 끝마쳤을 때 정말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어려운 상황에 닥쳐도 장인정신과 사명감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끝마쳤을 때 강한 성취감을 느낀다고 그는 말했다.

소통을 통해 하나되는 제조1팀

최연대 팀장은 “현재 최고참과 신입의 나이가 20년이 훌쩍 넘는 경우도 있다.”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 몇 달 전, 팀원들끼리 서바이벌 게임을 하면서 고참과 신입이 한데 어우러져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평소 못했던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한다.

또 그는 “파트별로 특징상 근무 시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한 달에 한번 회식을 하면서 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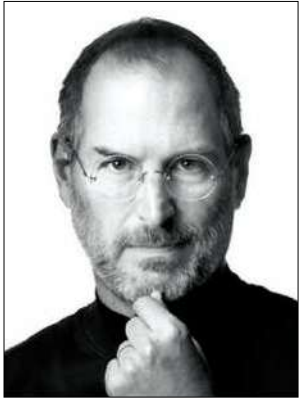
목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팀원들 간에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조1팀 전체회식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가족과 같은 분위기, 고참이 신입사원들의 멘토가 되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분위기도 회사에서 최고”라고 최 팀장은 말한다. 현재 제조1팀은 신규사업 장비도입에 따른 기술인력양성을 위해 11월 독일 연수도 계획 중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최 팀장은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품질이외에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주)원익퀴츠의 제품은 이처럼 장인정신의 사명감으로 열정적인 모습의 제조1팀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앞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그날까지 제조1팀은 (주)원익퀴츠와 함께 힘 없이 성장해갈 것이다.

글 김도용 · 사진 조인기





실패는 곧 승리의 역사

인류 역사에서 전설은 대개 승리한 자의 몫이 된다. 승리의 행진이 자연의 법칙으로 멈춰야만 할 때 전설은 곧잘 신화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아는 스티브 잡스는 승자였다. 그러나 잡스의 승리는 항상 그의 실패로부터 나왔다. 그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성공의 연금술사였다. 그가 신화의 세계로 한걸음 더 멀어지기 전에 잡스의 실패를 되짚어 봤다. 그의 실패는 곧 승리의 역사였다.

너무 잘 만들어 실패한 컴퓨터!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애플에서 쫓겨나게 됐지만 그 자신은 이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이 만든 애플 제품이 완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대중적인 제품을 만들어야 했지만, 실제로 만들고 싶은 것은 무결점의 완

벽한 최고급의 컴퓨터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넥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처음에 잡스는 최고의 제품을 돈 걱정 없이 만들어서 정부 기관에 팔 생각이었다. 비용 걱정 없이 오직 성능에만 초점을 맞춘 제품을 팔려고 보니 한 대당 가격이 무려 5만 달러에 달했다. 1980년대 일이다. 군대나 수사기관 일부 그리고 최고의 컴퓨터를 가지고 싶은 일부 마니아만 이 제품을 샀다. 8년 동안 팔린 넥스트는 불과 5만 대였다. 잡스는 실패했다.

그러나 넥스트의 운영체제(OS)는 얘기가 달랐다. 완벽한 소프트웨어였다. 그리고 개발비용을 제외하면 추가로 더 드는 돈도 없었다. 애플이 침체에 빠지고 나서 잡스가 만든 넥스트를 인수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성공의 연금술사

이유가 바로 이 OS였다. 현존 최고의 OS라고 평가받는 맥OS X(10)과 아이폰의 OS인 iOS는 넥스트가 8년 동안 다듬은 OS에 기반한다. 애플은 이 완벽한 OS로 재기에 성공했다. 스티브 잡스가 쫓겨난 자신의 회사에 다시 돌아오면서 그 역시 재기에 성공했다.

잡스는 특별고문 역으로 애플로 돌아온다. 12년 만이었다. 이 신비롭고 괴팍했던 천재는 관료화 된 애플을 다시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어갔다. '애플 마니아' 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혁신적인 그리고 대중적이지 않았던 제품이 대박을 치자 '애플=잡스' 라는 공식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

실패를 딛고 재기에 성공, 사후에는 아이폰4S 판매 급증!

스티브 잡스의 최고 무기는 프레젠테이션이었다. 애플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에는 항상 잡스가 있었다. 애플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는 조너선 아이브가 “내가 디자인 한 제품을 잡스가 소개할 때면 상처를 받은 했다”고 할 정도로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은 철저한 1인 체제였다. 그리고 그 만큼 효과를 봤다.

잡스는 건강 악화설로 애플 주가가 빠질 때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극적으로 등장해 신제품을 소개해왔다. 그만의 깜짝 쇼였다. 대중은 잡스와 그가 들고나올 혁신적인 아이폰5를 학수고대 기다렸다. 그러나 10월 4일 캘리포니아 쿠파티노의 애플 본사 강당에는 스티브 잡스도, 아이폰5도 없었다. 8월 잡스 후임으로 애플의 사령탑을 맡은 팀 쿡 CEO는 기존 제품의 성능을 개선한 아이폰4S를 내놓으며 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컸다. 애플 주가는 5%나 급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이폰4S가 (시장에) 감명을 주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IT 전문 컨설팅업체 ‘오뎀’도 “1년 동안 새 제품을 기다려온 애플의 충성고객들이 1년을 더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10월 6일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으로 결국 세상을 떠났다. 지금도 아이폰을 손에 쥐고 있을 370만

명의 한국 고객을 포함해 수많은 세계인들에게 그의 죽음은 충격을 던져줬다. 아이폰 4S가 ‘잡스의 유작’ 혹은 ‘4S(For Steve)’ 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잡스의 마지막 깜짝 쇼라도 된 듯 아이폰4S의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원익인의 이름으로!

지금 이 글을 읽는 원익인들의 손에도 아이폰이 많이 들려있을 것이다. 한 명의 위대한 CEO가 IT 트렌드를 넘어 사람들의 라이프사이클을 바꿔 놓았다. 그러나 모두가 스티브 잡스 일 수도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카리스마와 리더십은 비슷한 듯 다르다. 리더십은 배려가 있는 카리스마다. 원익의 정신을 키워나가면 이런 리더십을 갖춘 이들이 좀 더 많아 질것이다. 늘 그렇듯 리더십은 공명 정대한 도전과 창조적 열정으로 발휘된다.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 스티브 잡스의 카리스마와 팀 쿡 애플 CEO의 배려를 갖춘 원익인들이 더욱 더 늘어나길 바란다.

한정연 포춘코리아 기자

탄생에서 애플 창업까지

스티브 잡스는 1955년 2월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다. 대학원생 친부로부터 태어난 그는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클라라 잡스 부부에게 입양된다. 그의 친부모는 잡스를 입양 보내며 대학에 보내달라는 조건을 걸었다고 한다. 잡스는 사과 등 과수원이 많았던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기계공인 양부모 밑에서 넉넉하지 않은 성장기를 보냈다.

그가 리드대학을 중퇴할 당시 마운틴뷰 인근에는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작은 회사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스티브 잡스의 실제 고향이 실리콘벨리로 변신하고 있었다. 대학을 중퇴한 그는 그 때 음료수병을 주어야 판 돈으로 인도 여행을 떠났다. 아타리라는 비디오게임 업체에서 일하던 때의 일로, 그의 대단한 모험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행에서 돌아온 잡스는 또 다른 천재 스티브 워즈니악을 만나 양부모 차고에서 PC를 만들어 애플이란 회사를 창업한다. 그리고 1983년 애플이 상장된 후 포춘 500대 기업에 오른 청년 사업가로 월스트리트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다.



삼성, 특허소송 불구 첨단 핵심 부품은 여전히 한국산 우세

애플의 아이폰에는 항상 한국 부품이 대다수였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세계 각국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지금도 그럴까?

시장조사 전문 업체인 아이서플라이는 아이폰4S를 분해해 부품을 만든 회사와 가격이 얼마인지를 분석했다. 현재 소비자가격이 199달러짜리인 16기가바이트(GB) 모델의 부품 값을 나타내는 구성명세서(BOM, Bill Of Material)는 188달러로 나타났다. 부품 사는 데 188달러가 들었다면 사실은 적자에 가깝다. 그러나 대량 구매를 한 만큼 실제 부품 가격은 이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아이서플라이는 “외관상으론 아이폰4S가 신선한 면이 부족해 실망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내부 구성은 주문제작한 아바고테크놀로지사의 독창적인 다중 무선 모듈과 하이닉스반도체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애플 제





원익인이 창조하는 원익이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결실이
최종 상품의 곁에 있든 속에 있든 그 빛을 발할 것이다.

품에 처음 사용되는 등 많은 혁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이서플라이는 16GB(소비자가격 199달러) 기준 모델의 BOM은 188달러 이고, 생산비 8달러를 더하면 총 비용은 196달러이고 32GB(소비자가격 299달러) 중간급 제품의 BOM은 207달러, 64GB(소비자가격 399달러) 고급 버전의 BOM은 245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낸드 플래시 가격을 제외하면 모든 모델의 부품 값과 제조비는 모두 기준 모델과 같았다.

분해 평가액이란 것은 사실상 예비조사 결과를 말한다. 단순히 하드웨어 비용만 더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나 라이선스 사용료, 로열티와 같은 기타 지출은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아이서플라이의 설명이다.

아이서플라이는 이전 아이폰과 아이패드 시리즈를 해체했을 때 삼성전자나 도시바의 낸드 플래시 제품만 찾아냈었다. 그러나 이번 분해한 아이폰 4S에는 역시 우리 기업인 하이닉스 부품을 장착한 사실이 처음 밝혀져 놀라운 점으로 꼽혔다.

아이서플라이는 이를 두고 한국 하이닉스의 깜짝 등장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이 회사는 “아이폰4S 가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낸드를 공급한다는 것은, 하이닉스로서는 설계상의 큰 승리를 뜻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종전에도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모바일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공급하는 등 애플의 주요 부품 납품처였다. 다만 모든 아이폰이 동일한 부품을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해 아이폰 분해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아이폰4S 16GB 모델에서 낸드 플래시 가격은 19.2달러로 단일 부품으로는 디스플레이(23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지만, 32GB와 64GB 버전

에서는 각각 38.4달러, 76.8달러로 가장 비쌌다.

아이서플라이는 “아이폰4S는 듀얼 코어 A5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장착했는데, 아이폰4에 사용된 A4와 마찬가지로 다이 마크(제품 표면에 새겨진 상표)로 볼 때 삼성전자가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일본 부품업체는 여전히 광학 부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입증됐다. 이번에 분해한 아이폰4S의 8메가픽셀 카메라 이미지 센서는 일본의 소니 제품이었다. 다만 애플은 소니에 이어 옴니비전을 제2공급자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무라타와 미국 브로드컴으로부터 공급받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주파수 조절 모듈도 아이폰4 때와 동일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와 특허 소송 중이지만 삼성이 IT 부품 분야에서 워낙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과의 거래를 끊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팀 쿡 애플 CEO와 만나 부품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원익은 첨단 핵심 소재 분야의 최강자다. 글로벌 시장은 이제 좋은 제품을 기획하고 잘 만들어야 하는 것 이상을 원하고 있다.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는 애플 로고를 붙인 모든 전자기기에 생명을 불어 넣었다. 원익인이 창조하는 원익이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결실이 최종 상품의 곁에 있든 속에 있든 그 빛을 발할 것이다. 애플 로고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며 즐거움을 찾듯 생명력 있는 원익의 로고를 보고 세상 모두가 감동할 그날을 향해 모든 원익인이 조금씩 조금씩 세상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조 로 세 계 를 매 혹 시 킨 —

— Z O R R O —

전설의 영웅 '조로' 그를 만나다

11월 4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는 한 세기동안 전 세계 많은 이들의 사랑 받아온 '조로(Zorro)'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펼쳐질 예정이다.

2008년 7월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시작된 '뮤지컬 조로'는 1주일 만에 25만 5천 파운드의 판매고를 올려 게릭시어터(Garrick Theatre) 박스 오피스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런던에서만 31만 명이 관람하고 1100만 파운드를 올리며 로렌스 올리비에상 최우수작품, 남우주연, 여우주연, 안무, 조연 등 5개 부문 후보에 노미네이트되는 기염을 토했다. 아찔한 공중 아크로바틱, 관중을 압도하는 검술 대결, 마술이 어우러진 대작 '조로'는 라틴의 열정이 넘치는 '집시 킹스'의 음악과 정열의 플라멩코의 라파엘 아마르고 안무가 어우러져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파리, 브라질, 일본, 모스크바에 이어 서울에서 첫 선을 보인다.



정의를 구현하는 마스크 영웅

19세기 초 캘리포니아를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 귀족의 아들인 디에고는 아버지 돈 알레한드로의 지위를 이어받기 위해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루이사와 친구 라몬을 뒤로하고 바르셀로나에 있는 군사학교로 보내지지만 학교를 그만두고 집시들과 함께 자유로운 방랑생활을 하며 세월을 보낸다. 그 사이 라몬은 디에고를 배신하여 돈 알레한드로의 통수권을 빼앗아 폭력을 일삼는 군주가 되고 건디다 못한 루이사는 디에고를 찾아가 그를 설득한다.

그를 남몰래 사랑했던 집시 여인 이네즈와 집시 무리들은 디에고를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함께 돌아온다. 돌아온 디에고는 루이사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배신자 라몬에게 굽실거리며 중요한 고비마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 정의를 구현하고 라몬 일당을 번번이 궁지에 빠뜨리는 마스크를 쓴 영웅이 출현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를 '조로'라 부르기 시작하며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줄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실력과 배우들의 연기도 기대

뮤지컬계의 실력파 배우 조승우와 '삼총사', '햄릿'에서 뛰어난 검술실력을 보여준 박건형, '지킬앤하이드' 김준현이 조로역으로 캐스팅되었다. 이 외에도 조

정은, 구원영(이하 '루이사' 역), 문종원 최재웅(이하 '라몬' 역), 김선영 이영미(이네즈 역) 등 내로라하는 실력파 배우들이 작품에 출연한다. 여기에 데이비드 스완 연출과 김문정 음악감독이 어우러져 국내 최고 제작진을 이루어 완성도 높은 작품을 관객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가을의 끝자락에 등장할 '조로'는 흥겨운 플라멩코의 선율 속에 긴장감 넘치는 연출로 관객들을 스페인 열정 속으로 흠뻑 빠져들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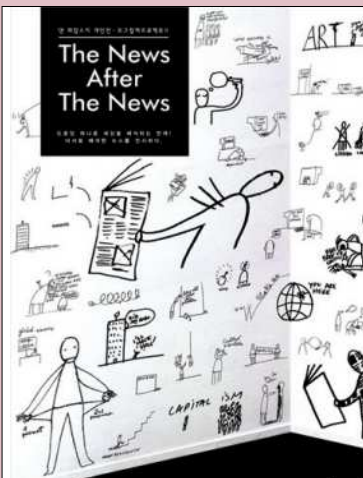
공연기간 2011.11.4(금)~2012.1.15(일)
장 소 블루스퀘어 뮤지컬 전용극장
시 간 화요일 PM 8시/수요일 PM 4시, 8시
토요일 PM 3시, 7시, 10시
일요일 PM 2시, 6시, 10시 (일요일 공연없음)
관 랑 료 VIP 130,000원/R 110,000원/
S 80,000원/A 50,000원/B 30,000원
할제어석 55,000원 (장애인50%)
문 의 02-548-1141
홈페이지 <http://Zorrothemusical.co.kr/>

드로잉 하나로 세상을 해석하는 천재

댄 퍼잡스키 한국에 오다

난 9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 토탈 미술관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적 이슈를 만화와 그래피티가 혼합된 낙서예술로 표현하는 유일한 비주얼 아티스트 '댄 퍼잡스키(Dan Perjovschi)'의 첫 번째 내한 전시회 'The News After The News'가 열리고 있다.

—
댄
퍼
잡
스
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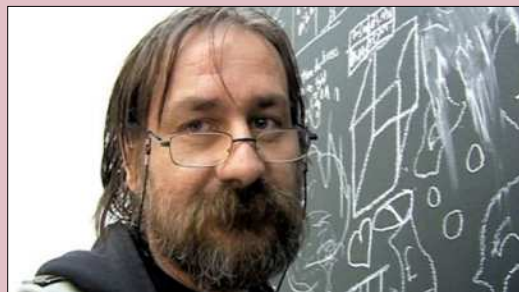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댄 퍼잡스키의 작업 스타일대로 종이 가 아닌 미술관 벽면과 바닥, 유리창 등 다양한 공간에 직접 드로잉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를 위해 그는 대한민국의 다양한 한국 신문을 리뷰하고, 정치, 사회, 문화적 이슈에 대해 특유의 풍자와 해학을 담아 그림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댄 퍼잡스키는 뛰어난 재능으로 10살 때부터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가로 훈련을 받았다. 1998년 룩셈부르크 전시회로 시작으로 2004년 조지마키우나스 수상과 함께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세계 각 곳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특히 2007년 뉴욕 '모마(MoMa)'와 런던 '테이트 모던(Tate Modern)'에서 비주얼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개인전을 열면서 대중들에게 이름을 널리 알렸다.

댄 퍼잡스키의 그림은 관람하기에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지만 내용면에서는 EU를 비롯한 유럽의 다양한 정세와 경제적인 상황들에 대한 예리한 분석으로 유명하다. 또한 다양한 신변잡기적 이야기와 문학, 익살맞은 글귀를 덧붙인 그의 그림은 전 세계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댄 퍼잡스가 바라본 한국의 모습이 그의 손끝에서 어떻게 재탄생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히 이번 전시에는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전쟁이미지 콜라주(War Collage)' 작품도 처음 소개된다. 한국 전쟁 이후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열리는 전시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섹션이다.

댄 퍼잡스키의 전시회 'The News After The News'는 지금까지 경험해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전시형태로 관객들에게 신선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한국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DAN PERJOVSCHI

댄 퍼잡스키(Dan Perjovschi)는 1961년 루마니아의 사회주의 체제 하에 태어나, 현재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 살고 있다. 그는 또한 루마니아의 정치와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유명하다. University of Art George Brancu에서 미술을 공부하며, '1989년 루마니아 혁명'으로 루마니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댄 퍼잡스키는 그의 유명한 정치적 풍자 만화들을 그렸다. 특히 1998년, 1999년 루마니아의 '일련' 연극을 포함한 '1989년 루마니아 혁명'을 주제로 한 100여점의 그림을 그렸다. 2004년 뉴욕 MoMA에서의 전시를 계기로, 댄 퍼잡스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특히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한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The News After The News'라는 제목으로, 2007년 뉴욕 MoMA와 런던 Tate Modern에서 비주얼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개인전을 열면서 대중들에게 이름을 널리 알렸다.



- 전시기간 2011.9.29(토)~2011.12.4(일)
- 장 소 토탈미술관
- 시 간 AM11:00~PM6:00
(월요일, 공휴일 정기휴관)
- 관람료 성인 9,000원/청소년 7,000원
- 문의 02-379-3994
- 홈페이지 <http://Danperjovschi.kr/>
<http://Culture.mog.kr/dan/>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보호하고 가을의 기운을 만끽하자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다. 높고 파란 하늘, 단풍으로 많은 이들의 기분을 설레게 만드는 가을이지만 동시에 일교차가 급격하게 커지는 만큼 감기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계절이다. 가을에는 약성이 따뜻한 차를 마셔 몸의 온기를 도와주는 것이 좋다. 몸에 기운을 보태주면 건강도 챙기고 동시에 가을을 운치 있게 즐길 수 있다. 가을을 맞이하여 '가을에 좋은 차 4가지'를 소개한다.



굴차

가을은 추수의 계절로 많은 과실이 결실을 맺는 계절이다. 그 중 굴은 알맹이에 비타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껍데기로 간단하게 차를 끓일 수 있어 버릴 게 없는 과일이다. 역사가 오래된 굴차는 산초과 굴나무 열매로 맛이 달고 껍질은 맵고 따뜻한 성질이 있어 기를 잘 순환시켜주기 때문에 비장과 위장을 보호하고 소화 불량, 복통, 구토, 설사에 효능이 있고 기침, 감기, 가래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줘 한약재의 재료로 쓰이기도 한다. 만들기도 매우 간편하다. 굴을 먹고 난 후 껍데기를 물에 씻어 햇빛에 잘 말려 10g에 물 15L를 넣고 약한 불로 천천히 끓이면 굴차 완성!

감잎차

감잎에 함유된 비타민C는 레몬의 약 20배 수준이며, 열에 잘 파괴되지 않아 차로 마시면 감기예방과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 혈압과 동맥경화는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단 감잎차는 예로부터 설사에 민간요법으로 사용했던 만큼 변비가 심한 사람은 복용에 주의를 요한다.

다래차

다래차는 열을 내리고 갈증을 없애주며 위장질환과 소화불량, 관절통 등에 효과가 있다. 참9~10월에 열려 가을철에 마시기에 좋다. 또한 담석, 방광결석 등에 효과가 있어 신장에 좋은 차다. 참고로 다래차는 젖을 잘 나오게 하는 효능이 있어 오미자차와 함께 임신부와 출산여성에게 매우 좋은 차로 알려져 있다.

국화차

국화차는 국화에는 눈과 간 기능 회복에 좋은 비타민A 비타민B1, 콜린, 스타키드린, 아데닌 등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간장을 보호하고 눈을 밝게 하며 머리를 좋게 해 수험생에게 효과적이다. 본초강목에도 '오래 복용하면 혈기에 좋고 몸을 가볍게 하며, 위장을 편안케 하고 오장을 도우며 사지를 고르게 할 뿐 아니라 감기와 두통 및 현기증 등에도 효과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만큼 국화차는 향기만큼이나 몸에도 좋은 차다. 단, 국화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들고자 할 때에는 주의를 요한다.

번호가 나오기까지
함께 하신 원익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 원익 안봉훈
 권윤정
 서우현
 이창진

(주) 원익쿼츠 이용득
 강장건
 도현수
 강득심
 원익쿼츠 원익나눔회

신원종합개발(주) 최윤서
 최정미

(주) 원익아이피에스 정명조
 하영찬
 한생
 윤어진
 TGS 본부 정치사업부
 ILPS 아구동호회

(주) 원익머트리얼즈 이기원
 송민희

(주) 위닉스 김보애
 안희태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서병희

기획조정실 김동철
 박한새



2011 FALL
V O L . 28

세 계 초 우 량
기 업 을 향 해 가 는
원 익 , 원 익 인 이
함 께 하 는 사 보

2011
NEW

TViX™
www.tvix.co.kr

“ Enjoy your smart TViX ! ”



Xroid A1

안드로이드 OS / File Sharing 기능 / Full 웹 브라우저 / 손쉬운 App 설치
오디오 멀티태스킹 및 다양한 위젯 / 혁신적인 커버아트 / 차세대 오디오
패스스루 / 원클릭 HDD 장착 / e-SATA 지원 / 3TB HDD 지원
USB3.0 과 다양한 입력장치

 **HDMI 1.3** **MKV** **HD 1080p** **eSATA** **uPnP** **DOLBY DIGITAL**



Xroid B1 mini



11월 출시 예정
(원익 계열사 가족들에게 11월 중 특별할인 예약판매 진행)